



월간 북한동향

제7권 제2호 (2013년 3·4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7권 제2호 (2013년 3·4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3 March 2013

| | |
|----------------|---|
| ❶ 주차_3.01-3.03 | 1. 대내 동향 6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8 |
| | 3. 대남 동향 10 |
| ❷ 주차_3.04-3.10 | 1. 대내 동향 12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16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
| | 3. 대남 동향 20 |
| ❸ 주차_3.11-3.17 | 1. 대내 동향 26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3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
| | 3. 대남 동향 35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 ❹ 주차_3.18-3.24 | 1. 대내 동향 4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45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
| | 3. 대남 동향 49 |
| ❺ 주차_3.25-3.31 | 1. 대내 동향 54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
| | 2. 대외 관계 6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
| | 3. 대남 동향 62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인쇄: 2013년 5월 발행: 2013년 5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윤훈희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7.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4 April 2013

| | |
|----------------|--|
| ❶ 주차_4.01-4.07 | 1. 대내 동향 68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72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76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 ❷ 주차_4.08-4.14 | 1. 대내 동향 8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8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87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 ❸ 주차_4.15-4.21 | 1. 대내 동향 9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98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02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 ❹ 주차_4.22-4.28 | 1. 대내 동향 10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1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17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 ❺ 주차_4.29-4.30 | 1. 대내 동향 122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2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25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 ■ 3월 일지 / 128 | |
| ■ 4월 일지 / 130 | |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3.01-3.03

3월

1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전역서 ‘식수절’ 기념 식목행사 열려(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식수절’(3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북한 각지에서 식수행사와 꺾기모임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함.
 - 통신은 이날 “조선(북한)에서 봄철 나무심기가 시작됐다”며 “김정은 원수님의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를 수림화·원림화하기 위한 꺾기모임이 각지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 또한 평양의 만경대혁명사적지, 문수봉혁명사적지, 중앙식물원 등에서 농업근로자, 학생, 근로자,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원들이 각각 모임을 가졌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 등이 모임에 참석했다고 설명함.

- 北, 김정은 생일(1월8일) ‘軍 명절’로 지정 확인(3/3,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이 대외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1월8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조용히 보냈지만 북한군에서는 이날을 중요한 날로 챙기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고 조선중앙TV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함.
 -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1월과 2월 북한군을 현지시찰한 내용을 담은 ‘기록영화’를 새로 만들어 방영함. 이 영상물을 보면 한 군부대 식당에 붙어 있는 ‘병사들을 위한 날 운영계획’에 1월8일이 다른 중요한 ‘국가적 명절’과 똑같이 표시돼 있음.
 - TV는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20일께 시찰한 인민군 323군부대 관하 4대대의 이 식당을 소개하면서 “식당에 들리신 최고사령관(김정은) 동지께서는 ‘병사들을 위한 날’ 운영계획을 보시고 지휘관과 군인가족들이 병사들을 위해 아낌없는 정성을 바쳐가고 있는데 대해 기뻐했다”고 전함.

나. 군사

● 軍 “北, 동해서 육·해·공 통합 화력훈련 징후”(3/3, 연합뉴스)

- 북한군이 동해지역에서 대규모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준비하는 징후가 우리 군 당국에 의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군이 대규모 합동훈련을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북한 전역에서 훈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초 동해지역에서 육·해·공군 통합 화력훈련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 훈련기간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훈련을 실시했으나 이번에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에 맞춰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훈련기간에 맞춰 이런 대규모 훈련을 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함.

다. 사회·문화

● 北, 아시아마라톤 우승 김금옥 환대(3/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일 아시아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하고 귀국한 김금옥 선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환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통신은 이날 “제14차 아시아마라톤(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김금옥 선수가 조국에 돌아왔다”며 광범기 노동당 비서와 리영수 당부장, 리종무 내각 체육상 등이 비행장에서 맞았다고 전함.

2 대외 관계

- 北 “김정은, 북미 체육교류에 기대 표명”(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한과 미국의 체육 교류에 기대를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전날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미국프로농구(NBA)의 유명 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먼과 그 일행을 위해 마련한 만찬에 참석했다며 “원수님(김정은)은 이런 체육교류가 활성화돼 두 나라 인민(국민)들이 서로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 北언론, 김정은-로드먼 만남 대대적 보도(3/1, 노동신문 등)
 - 북한의 신문과 방송 등 주요 언론매체들은 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방북 중인 전 미국프로농구(NBA) 유명선수 데니스 로드먼을 만났다는 소식을 주요 기사로 보도함.
 -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를 대동하고 전날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미국의 묘기 농구단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와 조선체육대학 화불(홋불)농구팀의 혼합경기를 관람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함.
 - 1면에는 김 제1위원장과 로드먼이 관중석에 나란히 앉아 환담하는 사진도 실렸고 2면에 김 제1위원장과 로드먼 일행이 전날 북한 올림픽위원회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했다는 기사를 사진 2장과 함께 게재함.

- 北 “日, 군국주의 부활에 열 올려”...3·1절 맞아 비난(3/1, 노동신문; 우리 민족끼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반외세, 통일애국의 기치높이 민족의 활로를 열어나가자’는 사설에서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과 재침을 공공연히 기도하며 독도강탈 책동과 반공화국 고립압살 소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일본의 죄악은 반드시 결산돼야 한다'는 글에서 "일본 반동들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을 반성하는 대신 군국주의 부활과 조선반도(한반도) 재침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함.

● **北, 올 1월 對中 곡물·비료 수입 급감(3/3, 연합뉴스)**

- 북한이 올 1월 중국에서 수입한 식량과 비료의 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3일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2013년 1월 북한의 대중 곡물 및 비료 수입 동향'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중국에서 곡물 2천174t과 비료 2t을 수입했으며, 품목 별로 보면 곡물은 밀가루 1천172t, 옥수수 540t, 두류 342t, 잡곡 120t 등이 고 비료는 유안비료만 2t임.

■ **기타 (대외)**

- 【중통 논평】 3·1절 94주년을 맞으며 '자위대의 국방군으로의 개편움직임과 평화헌법개정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행사, 독도강탈책동 등' 거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국주의재침책동에 계속 매달릴 경우 무자비한 보복과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3.1,중통/일본은 함부로 경거망동 하지 말아야 한다)

3 대남 동향

● 北노동신문, 이명박 前대통령 퇴임 보도(3/2, 노동신문)

- 북한이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사실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보도를 통해 주민에게 전함.
- 신문은 이날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최악의 흔적’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리명박이 마침내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보도했으며 신문은 “리명박 패당이 떠든 ‘원칙’이란 대화와 협력을 파괴하기 위한 ‘원칙’이었을 따름”이라며 “리명박은 집권 전 기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외세와 작당해 북침전쟁 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고 비난함.

■ 기타 (대남)

- 北 단군민족통일협의회와 南 3.1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 및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3.1인민봉기 94돌 관련 남북공동호소문 발표(3.1, 중통·평방)

3.04-3.10

3월

2주차

1. 대내 동향

가. 정치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10만명 군민대회’…연일 전쟁분위기 고조(종합)(3/7, 조선중앙TV)**
 - 북한이 7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영림 내각 총리를 비롯해 10만여 명(북한측 추산)의 주민, 군인들이 모임 가운데 지난 5일 발표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민연환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밝힘.
 - TV는 참가자들이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불타는 보복 일념을 안고 모였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전함.

- **김정은, ‘연평도포격’ 부대 시찰…“전면전 준비완료”(종합)(3/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전방지역에 위치한 서남전선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7일 새벽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장재도방어대의 감시소 등을 둘러본 뒤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멸적의 불줄기를 날릴 수 있게 경상적인(상시적인)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영해, 영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어준다면 호되게 답새기고 다시는 움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고 지시함.

- **北 김정은, 체육촌 시찰…양궁경기도 관람(3/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시내 청춘거리 체육촌을 시찰하고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의 양궁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체육촌의 농구·탁구·역도 경기장과 체육선수들을 위한 숙박시설인 서산호텔을 차례로 둘러보고 “체육촌을 훌륭히 개보수하는

것은 나라의 체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리모델링을 지시함.

● 北, 지방서도 최고사령부 성명 지지 군민대회(3/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평안남도, 자강도, 함경북도 군민대회가 9일 진행됐다”라며 “지방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꾼들, 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전문학교 일꾼들과 근로자, 교직원, 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다”고 밝힘.
- 군중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침략자들이 불을 걸어온 이상 반세기 이상이나 기다려온 천금 같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선식의 전쟁방식으로 단숨에 결판낼 것”이라며 “최후승리를 떨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으로 생산보장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김정은동향

- 3/6,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용성·서포·역포지구 살림집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3.6, 중방)
- 3/6, 김정은 黨 제1비서, 3.6 라오스 국가주석에게 77회 생일 축전(3.6, 중통·중방)
- 3/7, 김정은 黨 제1비서, 3.7 이른 새벽 서남전선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다시찰(3.8, 중통·중방)
 - 최룡해, 장성택, 김격식, 김영철, 박정천, 림광일, 안지용 동행
 - ‘싸움이 터지면 방어대 군인들이 한 몫 단단히 해야 한다’며 ‘영해,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적진을 아예 벌초해 버리라고 지시 및 장재도방어대 군인들 및 군인가족들과 기념촬영
 - 또한 무도영웅방어대에서는 서해 5개섬에 증강배치된 적들(南)의 새로운 화력타격수단과 대상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재확정하고 정밀타격 순차와 질서 규정해 주고 군인들 및 군인가족들과 기념촬영
- 3/9,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춘거리 체육촌 시찰 및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의 활쏘기경기 관람(3.9, 중통·중방)
 -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격식, 리영수, 김영훈, 량청송, 마원춘, 리중무 동행
- 3/10, 김정은 黨 제1비서, ‘선전 선동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선동원들(김덕교,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노동자 등)에게 ‘감사’ 전달(3.10,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내각총리), 황해남도 은천군 안악군 봄철영농준비실태 현지요해(3.7, 중통)
 - 이에 앞서 은률광산을 돌아보고 대형장거리 벨트콘베아 정상운영과 쇠돌생산을 정상화 할 데 대해 강조

나. 군사

● 北 ‘軍전용’ 평양 대성산종합병원 완공(3/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장기간 공사를 진행해온 평양 대성산종합병원을 최근 완공하고 7일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대성산 기슭에 세워진 이 종합병원은 연건축면적이 10만여㎡이고 병동 3개에 종합수술실, 집중치료실, 기능진단과, 화상외과, 안과, 구강외과, 사지외과, 초음파과 등을 갖췄음.
- 중앙통신은 개원사를 인용, “선군혁명영도의 첫 시기부터 병사들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대성산종합병원 건설을 발기하시고 강력한 건설부대까지 동원시켜주셨다”며 이 병원이 군인 병원이라는 점을 밝힘.

● 北, 동·서해 잠수함 활동…내주 국가급 훈련 돌입(3/6, 연합뉴스)

- 북한군이 동·서해에서 잠수함 기동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작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동계훈련 때는 122mm 방사포와 자주포, 해안포 등을 동원한 포 사격을 예년보다 3배나 늘린 것으로 전해졌음.

● 현영철 북한군 총참모장 어제 판문점 시찰(3/10, 연합뉴스)

- 북한이 연일 대남 위협 공세에 나선 가운데 현영철 북한군 총참모장이 9일 판문점을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0일 “북한군 총참모장 현영철이 어제 오후 늦게 군 간부 여러 명과 함께 판문점을 시찰했다”면서 “판문점 통일각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북측 지역 등을 30여 분간 둘러보고 돌아갔다”고 밝힘.

다. 사회·문화

- 北 “핵 과학자 뒤에 어머니 있다”...여성 역할 강조(3/8,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은 대단히 크다”라며 핵 과학자들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내세움.
 - 신문은 이날 ‘여성들은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억세계 싸워나가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훌륭한 자식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법”이라며 “오늘 핵과 위성을 가진 선군 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떨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장한 모습에는 그들을 위해 바친 어머니와 아내들의 남모르는 수고가 배어 있다”고 독려함.

- 작년 11월부터 北 반입 곡물 급감(3/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4개월간 외부에서 확보한 곡물이 많이 감소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전함.
 - FAO가 최근 발표한 2013년 1분기의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이 국제사회 지원과 수입 등으로 외부에서 확보한 곡물은 6천800t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만 2천t의 13%에 그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방북 美농구단, 친선전람관 등 관광 후 귀국(3/5, 평양방송)**
 -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과 함께 방북했던 미국 묘기 농구단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 일행이 5일 평양을 떠났다고 북한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미국 농구팀 일행은 방북 기간에 평안북도 향산군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비롯해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장, 인민대학습당, 평양볼링장 등을 둘러봄.
- **北 “차베스, 주권수호·라틴아메리카 통합에 기여”(3/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암 투병 끝에 사망한 데 대해 조전을 보내 “그가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고 라틴아메리카의 통합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조전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의 명의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과 엘리아스 아우아 외무장관에게 각각 발송됨.
- **北매체, 中양회 개막에도 ‘침묵’ 일관(3/7, 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매년 보도해오던 중국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 소식을 올해에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연합뉴스가 7일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등 북한의 주요매체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정협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소식을 전하는 보도가 최근까지 한 건도 없음.
- **‘외화벌이’ 위해 중동지역 파견 北근로자 증가(3/7, 연합뉴스)**
 - 외화벌이를 위해 중동 지역에 파견되는 북한 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중동 지역에 북한인 노무자들이 많이 나가 있다”면서 “북한이 과거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나라뿐 아니라 이른바 외화벌이가 되는 지역에도 근로자를 많이 파견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긴장 격화 행동 말라” 촉구(3/8,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이 8일 “관련국들이 냉정심과 자제심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세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견지하는 가운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근본적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6자회담(북핵)

● 유엔 對北제재에 추가될 개인과 기관은(종합)(3/7,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 오전 10시(뉴욕 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에는 기관 2곳과 개인 3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결의안 초안에 포함된 기관은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명은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추가됨.

● 北 예상대로 강력반발...한반도 긴장 격화(3/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기도 전에 북한이 ‘핵선제 타격 권리 행사’를 위협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예상대로 격화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북한은 결의 채택 직전인 7일 오후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 수위를 높임.

- 미국 ‘핵우산’ 재확인...“북한 핵보유국 인정못해”(종합)(3/8,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핵우산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정책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억지력을 확인해 왔다”고 강조함.

- 北, 전방위 도발 위협...군사 행동으로 이어지나(종합)(3/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8일 제3차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이번에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토록 했으며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금지물품이 적재됐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함.

- 北 장성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상태”(3/8, 연합뉴스; 노동신문)
 - 유엔의 제재 움직임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북한군 장성이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인민군 장령(장성) 강표영은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민 대회에 참석, 군 장병을 대표한 연설에서 “조국통일대전의 출발진지를 차지한 인민군 장병들은 방아쇠에 손을 걸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타격목표를 확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들은 경량화, 소형화되고 다중화된 핵탄두들을 장착하고 대기상태에 있다”고 말함.

- 러시아 “북한, 안보리 결의 올바로 수용해야”(종합)(3/8, 연합뉴스)
 - 러시아는 7일(현지시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를 수용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시도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채택과 관련한 공보실 명의의 논평에서 “북한이 결의에서 표현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핵무기와 모든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가적 진행을 포기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함.

- 北외무성 “핵보유국·위성발사국 지위 영구화할 것”(종합)(3/9,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9일 대변인 성명에서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산물로 규정하고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대변인 성명은 “이번 제재결의는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의 극악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도용된 추악한 산물”이라며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인 이번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준열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함.

- 北 “핵보유, 美·南 책임…핵억제력 유지”(3/9, 노동신문)
 - 북한의 대외단체인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가 비망록을 발표하고 핵보유에 대한 미국과 남한 책임론을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전함.
 - 이 단체는 ‘도발적인 반공화국 핵 소동으로 얻을 것은 파멸밖에 없다’ 제목의 비망록에서 “우리는 원래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 이용할 생각만 했지 군사적 목적에 이용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북침전쟁책동과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에 매달리면서 우리에게 핵위협을 직접적으로 가해온 데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밝힘.
 - 이어 비망록은 “남조선 괴뢰들은 미국과 함께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협을 몰아오고 핵문제의 해결을 방해해온 장본인”이라며 “역대 괴뢰정권은 미국이 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데 대해 묵인, 조장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북침 핵전쟁책동에 적극 가담해 나섰다”고 주장함.

기타 (6자회담(북핵))

- 【중통 논평】 “미국이 핵전쟁도발을 기정사실화한 이상 우리가 유명무실화한 정전협정에 구속된다는 것은 자멸행위”라고 ‘北 軍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정전협정 백지화조치(3.5, 성명)’ 재차 강조 위협(3.6, 중통/반미대전의 최후승리를 위한 결정적 조치)
- 【외무성 대변인 성명(3.8)] 유엔 안보리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對北제재 결의를 전면배격하며 핵보유국·위성발사국 지위를 영구화할 것’이라고 위협(3.9, 중통·중방)

3 대남 동향

- 北, 미사일 2천여기 배치...50% 남한 사정권(3/4, 연합뉴스)
 - 북한은 2천여 기의 각종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0%가 남한을 공격하는 미사일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국내 한 미사일 전문가는 4일 “북한은 1990년대 말 기준으로 매년 100기의 각종 미사일을 생산했지만 지금은 생산 능력을 더 갖췄을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생산된 미사일 가운데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800~1천기 정도”라고 밝힘.
- 北, 동·서해에 선박·항공기 항행금지구역 설정(3/6,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 기간에 맞춰 동해와 서해에 북한과 타국 선박·항공기의 항해와 운항 주의를 요망하면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6일 전함.
- 北 “먼저 핵단추 눌러도 책임없다”...연일 핵전쟁 위협(3/7,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자주권은 목숨보다 귀중하다’ 제목의 정론에서 “우리 군대의 물리적 잠재력은 오늘 더욱 강해졌고 핵전쟁이면 핵전쟁, 그보다 더한 수단을 동원한 전쟁이라도 다 맞받아 치를 수 있다”며 “조선정전협정이 백지화된 후 세계적인 열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함.
 - 이어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누가 먼저 핵 단추를 누르든 책임을 따질

법적 구속이 없다”며 “우리의 타격수단들은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발사되고 불을 뿜으면 침략의 본거지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주장함.

- **北외무성 성명 “제2의 조선전쟁 피하기 어렵다”(종합)(3/7, 연합뉴스)**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앞두고 또다시 선제 핵 공격 의지를 드러내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7일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며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함.
 - 안보리 전체회의를 6시간여 앞둔 이날 오후 6시께 발표된 이 성명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등을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 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외교적 해결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고 밝힘.

- **北 ‘전쟁불사’ 위협…한반도 정세 초긴장(종합)(3/8,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 2094호를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초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 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는 선언을 했고, 내부적으로 대규모 군민대회를 열어 연일 전쟁 분위기와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음.

- **北, 우리군 ‘지휘세력응징’ 방침에 “도발 망언” 발끈(3/8, 연합뉴스)**
 - 북한은 8일 우리 군 당국이 최근 “북한 도발시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감히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것은 전면전의 불집을 터뜨리겠다는 극악한 도발망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보도를 통해 “대결과 도발에 환장한 괴뢰군부깡패들은 사태의 엄중성과 그 파국적 후과를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고 제 죽을지 모르며 무분별하게 날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北 4군단 포병부대 수도권 겨냥 모의사격 급증(3/8, 연합뉴스)**
 - 북한 황해도에 있는 4군단 예하 포병부대가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한 모의 사격훈련을 최근 급격히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북한 4군단 포병부대들이 올해 들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해 모의사격훈련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NLL 일대의 화력 도발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北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판문점 연락채널 단절”(종합)(3/8, 연합뉴스)**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우리에 대한 침략행위로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엮는 파괴행위”라고 규정하고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힘.

- **北, 적십자채널 또 차단…軍통신선 추가조치 주목(종합)(3/8,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성명에서 “북남 사이의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면서 “북남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는 것을 통고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키리졸브’에 위협공세 지속…“최후명령만 기다려”(종합)(3/10,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철퇴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최후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들과 전략로켓트 군부대들,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들은 최후돌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중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 수단들도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 있다”고 밝힘.

- 또한 “조국통일성전의 포성이 울리면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던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소굴들은 삼시에 불바다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기타 (대남)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3.7)】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은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핵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외교적 해결의 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 남았다’며 ‘핵선제타격권리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3.7,중통·중방·평방)
-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등 관련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모험적 망동’이라고 비난하며 ‘군대와 인민은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 및 ‘선불질을 해댄다면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째 들어낼 것’이라고 위협(3.7,중통·노동신문/전쟁의 불집을 터치기 위한 고의적 도발)
- 【중통 논평】 ‘B-52H전략폭격기와 F-22스텔스전투기가 北수뇌부의 거처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발언 거론 ‘우리의 수뇌부와 제도를 어찌보려는데 진 목적을 둔 용납 못할 테러행위, 핵선제공격연습’이라며 ‘백두산식 대응방식으로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주장(3.7,중통/무주고훈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3.11-3.17

3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군사대치 속 양어장 찾은 까닭은(3/11, 연합뉴스)**
 - 최전방 군부대를 잇달아 방문해 호전적인 발전을 쏟아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양궁경기를 관람한 데 이어 양어장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북한 매체들은 12일 김 제1위원장이 백령도 타격임무를 부여받은 월내도 방어대와 제641군부대 산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시찰하고 통정양어장을 찾은 사실을 공개함.
- **北 각종 매체 통해 ‘전시태세’ 강조…분위기 고조(종합)(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시점으로 공연한 11일 ‘전시태세’와 ‘전투동원태세’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조선은 지금 전시태세에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온 나라의 산과 들이 성새(성과 요새)가 되고 전호(참호)가 됐으며, 최고사령관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전시태세에 있다”고 전함.
 - 이어 “각지 당조직과 근로단체 조직에서 긴급협의회가 일제히 진행됐다”며 “단순히 협의회가 아니라 결전을 앞둔 작전회의였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군부대 예술단 공연 관람(3/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해안포병의 노래’ ‘전사의 노래’ ‘병사들이 영웅이 되자’ ‘남해가 앞에 있다’ ‘천만이 총폭탄되리라’ 등의 기악과 노래 공연을 관람했다고 설명함.
- **北 김정은, 연평도·백령도 겨냥 포사격훈련 지도(종합2보)(3/14, 조선중앙방송)**
 - 한미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에 반발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를 겨냥한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4일 전함.
- 방송은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대연평도, 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끌어들여지는) 열점지역(세력간 충돌이 격화되는 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셨다”고 밝힘.
 - 이어 “이번 훈련은 포병구분대들이 실전과 유사한 조건에서 분담된 목표에 대한 화력타격 가능성과 격파능력을 확정하며 포 무기들의 성능을 검열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목적을 뒀다”고 덧붙임.

● 北 ‘50년대 조국수호정신’ 연일 강조…그 이유는(3/15,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을 연일 강조함.
- 신문은 1면에 실은 ‘모든 것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위하여’란 제목의 사설에서 “전시와 다름없는 지금 우리에게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더없이 귀중한 정신적 재보로, 고무적 힘으로 되고 있다”고 전함.

■ 김정은동향

- 3/12, 김정은 黨 제1비서, 3.11 백령도 인근 월내도방어대 시찰(3.12,중통)
 - 최룡해, 김격식, 김영철, 박정천, 림광일, 안지용 동행
 - 적함선들이 군사분계선 해상수역에 접근할 때에는 위압적인 경고사격을, 침범할 때에는 강력한 조준격파 사격을 가할데 대한 새로운 해상작전규정 비준
- 3/12, 김정은 黨 제1비서, 3.11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 포병구분대 시찰(3.12,중통)
 - 백령도의 적들이 움찔하기만 하면 괴뢰6해병여단 본부와 관하 해병대대들을 무자비한 화력타격으로 초토화할데 대한 임무 수립(동행인 동일)
 - 김정은, 용정양어장(황남 용연군/10.11.21 김정일과 旣 방문) 현지지도(3.12,중통)
- 3/12,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3.12,중방·중통)
 - 최룡해, 현영철, 현철해, 박정천 등 수행 관람
- 3/14, 김정은 黨 제1비서, 연평도·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3.14,중방·평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격식, 박도춘, 리영길, 손철주, 김영철, 박정천, 림광일, 리성국, 리영래, 김명남, 안지용 동행
- 3/14, 김정은 黨 제1비서, 3.14 중국 시진핑(習近平)에게 ‘국가 주석·중앙군사총 주석 피선(舍人代 제12기 제1차 회의)’ 축전
 - 김영남도 3.14 시진핑과 장덕강(張德江, 舍人代 상무위원장 피선)에게 축전(3.14,중통·중방)
 - 北,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12기 제1차 회의(3.3~12, 베이징 인민대학습당) 소식 보도(3.14,중방)

■ 기타 (대내 경제)

- 최영림(내각총리), 청춘거리 체육촌과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현지요해(3.11,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세포등판개건전투장(강원도 세포·평강·이천군 일대)·문천시 남창협동농장·안변군 비산협동농장·문평제련소 등 현지요해(3.15,중통)

나. 경제

● 북한 무역 상인, 중국내 예금 인출(3/14, 아사히신문)

- 북한 무역 상인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뒤 중국 내 은행에 맡겨둔 자금을 잇달아 인출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함.
- 신문은 ‘복수의 북중 무역상’을 인용해 북한 무역 상인들이 이달초 안보리 결의 직후부터 중국은행, 중국교통은행 등에 맡겨뒀던 위안과 달러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함.

● 北, 군사적 긴장 속 생산부문 성과 선전(3/17,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평안북도 향산군에 있는 희천발전소의 2단계 공사 진행 상황을 전하면서 “희천발전소 2단계 공사대상인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 건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이 원수 격멸의 기상 안고 위훈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함.
- 신문은 ‘불타는 적개심으로 증산투쟁을 힘있게’라는 글에서 “평안북도의 공장·기업소의 일꾼과 노동자가 미제와 남조선 괴뢰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일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함.

다. 군사

- **전투태세 돌입했다는 北전방부대에서 탈영병 급증(종합)(3/12, 연합뉴스)**
 -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서 탈영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12일 “최근 몇 달 사이 최전방 북한군 부대의 탈영자 규모를 추적한 결과 예년과 비교하면 7~8배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군과 정보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北, 단거리 미사일 두발 동해서 시험발사(3/15, 연합뉴스)**
 - 북한이 15일 오후 동해의 공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군 소식통은 이날 “동해 지역에서 화력훈련을 하는 북한군이 KN-02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두 발 공해상으로 시험 발사했다”면서 “단거리 미사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기타 (군사)

-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3.13)】 우리 軍의 ‘지휘세력 응징, 정권소멸’ 등 발언 거론 ‘군부 호전광들의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어린 치맛바람과 무관치 않다며 ‘무자비한 보복만 남았다’고 위협(3.13,중통·중방·평방)
- 괴뢰 군부 호전광들은 이 땅에 이제 더는 정전협정의 시효도, 북남 불가침선언에 의한 구속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남은 것은 우리(北)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행동, 무자비한 보복행 동뿐임.

라. 사회·문화

- **北, 태블릿PC로 TV시청…인트라넷 활용도 증가(3/15, 조선신보)**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5일 ‘수요 늘어나는 다블레트 PC(태블릿PC)/ ‘국내망’ 접속봉사도 시작’이라는 평양발 기사에서 최근 평양 도서관이나 식당에서 태블릿PC 사용자들을 가끔 보게 된다고 전함.
 - 태블릿PC의 ‘슬라이드쇼’ 기능이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는 젊은 여성, 학생들도 찾아볼 수 있으며 파일 열람 및 편집 기능, 사진·동영상 녹

음·녹화 기능, 음악재생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고 게임, 소설, 서적, 학습 자료도 담겨 있으며 특히 가격이 180달러 수준인 조선컴퓨터중심(KCC)의 ‘삼지연’은 TV수신 기능도 갖고 있음.

● **북한 어린이 28% 만성 영양실조로 성장 저하(3/16), 연합뉴스)**

- 북한 어린이 4명 중 1명꼴로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민의 3분의 2는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 어린이 28%가 영양실조로 성장 발육이 저하돼 있으며 특히 4%는 ‘극심한 영양실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北 “전국서 1950년대 전시가요 열풍”(3/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역에서 1950년대 전시가요 열풍이 불고 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최후승리를 확신하는 군민의 노래’라는 글에서 “지금 조선(북한)의 그 어디서나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불렀던 전기가요가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다”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그것은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원수격멸의 의지를 더욱 북돋워주고 있다”고 전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美,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촉구(종합)(3/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20년 전과 오늘, 미국이 새겨야 할 교훈’이란 기사에서 “지난 20년간의 조미(북미) 핵대결 과정은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경제적 제재의 화살이 결국은 조선의 핵미사일로 되돌아오게 됐다는 논박할 수 없는 진실을 낳았다”라며 “미국이 오늘의 악몽에서 벗어나려면 역사에 의해 여지없이 파산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걷어치우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함.
 - 통신은 “조선의 위성발사나 핵무기보유는 오직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그를 위한 담보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라며 “핵소동의 초점을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 사회주의의 붕괴’라는 불순한 목적에 둔 미국의 야망은 실현될 수 없었고 그들의 시간 끌기로 차레진 것은 조선의 적개심과 보복능력 향상이었다”며 북핵문제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함.
- 北, 中 인민정치협상회의 소식 뒤늦게 보도(3/14, 평양방송)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 14일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소식을 뒤늦게 보도함.
 - 방송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간부가 참여한 정협이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 北 “사이버공격은 적대세력의 비열한 행위”(3/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발생한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 장애 현상을 “적대세력의 비열한 행위”라고 15일 전함.
 - 통신은 15일 논평을 통해 “우리 공화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봉사기(인터넷서버)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집요한 비루스(바이러스) 공격이 연일 감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조선의 초

강경조치들에 질겁한 적대세력들의 너절하고 비열한 행위로 단정한다”고 밝힘.

- 논평은 이어 “이런 사이버공격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리졸브’ 합동군사연습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반공화국 압살책동의 일환인 적들의 사이버공격이 극히 무모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른 데 대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평양 주재 유엔 기구, 지방 방문 중단(3/15, 러시아의 소리)**

- 15일 러시아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의 평양 특파원은 북한에서 활동하던 유엔 기구들이 북한 내 지방 방문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유엔 기구들의 이런 결정은 북한이 지난달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나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방송이 설명함.

● **中 새 지도부에 잇단 축전…갈등 봉합 목적?(3/17, 조선중앙통신)**

- 1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영림 내각총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총리로 선출된 리커창(李克强)에게 16일 축전을 보냄.
- 최 총리는 축전에서 “중국인민이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과 나라의 종합적 국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며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가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계속 공고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같은 날 박의춘 외무상도 중국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왕이(王毅)에게 축전을 발송함.

● **北, 새 교황 프란치스코에 축전(3/17, 조선중앙통신)**

- 장재언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바티칸 교황청에 보낸 축전에서 “나는 주님의 은총과 가톨릭 교회의 두터운 신뢰 속에 베르골리오 추기경께서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된 데 대해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기타 (대외 관계)

- 【중통 논평】 최근 ‘北 인터넷 봉사기지들에 바이러스 공격이 연일 감행되고 있다’고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의 ‘사이버공격’ 제기 및 ‘미국과 추종세력들 책임’ 왜곡 주장(3.15,중통/너절하고 비열한 행위)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3.9), 3.14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3-141호로 배포(3.16,중통·평방)

나. 6자회담(북핵)

● 노동신문 “美, 대북적대정책 수정해야”(3/12,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미국에 대해 강경한 대북 적대정책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섬.
- 신문은 ‘자주권 수호에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은) 우리나라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핵 선제타격정책,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미국에는 오직 그 길밖에 없다”고 밝힘.
- 또 “이제라도 침략적인 핵 전쟁연습들을 당장 중지하는 것과 함께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한데 대해 당장 사죄해야 한다”며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반기문 UN사무총장 비난...“우리 협담 일삼아”(3/14, 조선중앙통신)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을 감싸면서 북한에 대한 협담을 일삼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반기문은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시험(핵실험)을 결코 들면서 고약한 소리를 하였는가 하면 미국의 북침 핵전쟁 연습까지 사사건건 두둔해 나섰다”고 밝힘.
- 이어 “이것은 그가 국제기구 공무원으로서의 초보적인 활동원칙도 망각하고 유엔 성원국(회원국)인 주권국가를 반대하는 적대세력의 고립압살책동에 공개적으로 편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그 직분에 맞게 우선 자기 사업에서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함.

● 北 외무성 “핵보유, 경제적 흥정물 아니다”(종합)(3/16, 연합뉴스)

- 북한은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중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지구상 어디에 있는 징벌하는 것이 우리 핵보유의 유일한 목적”이라며 “우리가 그 무슨 경제적 혜택과 바꿔 먹기 위한 흥정물로 핵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오산”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또 “다른 길을 택하면 도와주겠다는 미국의 서푼 짜리 유혹이 다른 나라 들에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개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다”며 “미국 고위당국자들이 줄줄이 나서 우리를 핵보유로 떠민 저들의 책임을 가리우고 마치 우리의 핵보유 때문에 정세가 격화된 듯 사태를 왜곡하는 녀두리를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밝힘.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오늘부터 정전협정 백지화…최후결전의 시각”(3/11,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천만군민이 떨쳐나 우리의 힘, 우리의 식으로 반미대결전을 전민항쟁으로 싸워 승리할 것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후결전의 시각이 왔다”며 “3월11일, 바로 오늘부터 이 땅에서 간신히 존재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됐다”고 밝힘.
- **北, 판문점 직통전화 차단…개성공단은 정상 출입경(종합)(3/11, 연합뉴스)**
 - 북한이 예고대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간 직통전화를 11일 차단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9시 우리 측 연락관이 북측 연락관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북측이 받지 않았다”고 전함.
 - 남북 연락관들은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께 업무개시 통화를, 오후 4시께 업무마감 통화를 해옴.
- **北 “키 리졸브 시작…파국적 결과 韓·美 책임”(종합)(3/11,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낸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둬드는 경고에도 끝끝내 도발적인 북침전쟁 불장난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며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성격과 규모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가장 노골적인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성명은 “미국과 괴뢰 군부 깡패들이 우리의 최후통첩에 무모한 전쟁 불장난으로 도전해 나섬으로써 최소한의 전쟁억제 장치였던 정전협정과 불가침 합의들은 전면 폐기되게 됐으며 전쟁을 막을 제동장치가 완전히 풀린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이제 사정없이 전쟁폭발의 길로 질주하게 됐다”고 강조함.

- **北, 朴대통령 겨냥 “독기어린 치맛바람” 비난(종합)(3/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광기어린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어린 치맛바람과 무관치 않다”고 12일 전함.
 -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 인민무력부(우리 국방부 해당)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군 관계자들의 ‘지휘세력 응징’ ‘북한 정권 소멸’ 등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힘.
 - 담화는 “청와대 안방에서는 그 무슨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청을 둔구면서 ‘무기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느니,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하는 나라는 자멸할 것’이라느니 하는 극히 상서롭지 못한 악담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주한미군 범죄 비난…“이 땅에서 미군 몰아내야”(3/1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함.
 - 통신은 이날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불행과 재난의 화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주한 미군들이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을 거론하며 “남조선 인민들은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친미사대 매국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군에 의해 빚어지는 흉악사건들은 극도의 민족멸시 사상과 오만, 강권이 낳은 극악한 범죄행위”라며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는 미군의 남조선 강점의 필연적 산물로, 피할 수 없는 항시적 현상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당사자 아닌 남한, 정전협정 말할 자격없다”(3/12, 노동신문)**
 - 정전협정의 일방적인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한 정부는 “정전협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1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함.
 - 신문은 이날 “괴뢰들이 정전협정 완전백지화를 선언한 우리의 정당한 조치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걸고 드는 것은 미국의 식민지전쟁 하수인들의 주제넘은 망동”이라고 밝힘.

- 北 “정전협정, 일방이 지키지 않으면 자동 백지화”(3/14,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4일 정전협정은 협정 체결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다른 협정들과 달리 정전협정은 특성상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할 성격의 협정이 아니며 어느 일방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밝힘.

- 北매체 “서해 5도 주민 피난가는 게 상책” 위협(3/17,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지구에 사는 주민은 피난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위협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글에서 “불벼락이 쏟아질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멀리 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또한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불가침 합의 무효화 등을 거론하며 “호전광들이 전쟁연습장에서 산생(생산)한 우발적인 한점의 불꽃도 순간에 전쟁의 불길로 번지게 될 것”이라며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일대 주민이 입게 될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함.

- 北, 정홍원 총리에 “첫 벌초대상될 것” 위협(3/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최근 연평도를 찾아 우리 군에 북한 도발에 확실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망언’ ‘특대형 도발’이라고 반발하며 “첫 벌초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함.
 - 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백두산천출위인(김정은)의 연이은 현지시찰과 멸적의 불벼락 선언에 넋을 잃은 자들이 함부로 헛바닥을 놀리며 목숨건 도박에 나선 것”이라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언한 특대형 도발로서 결코 스쳐지날 수 없다”고 주장함.

나. 경제 · 사회 · 문화

● 긴장고조속 개성공단 출입경 '정상'(3/11, 연합뉴스; 통일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와 '키 리졸브'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해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불가침 합의 폐기의 발효를 예고한 11일 개성공단 출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관계자 340명이 이날 오전 8시30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다고 밝힘.
- 북측은 이날 통행에 앞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출입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옴.

● 北, 금강산관광특구사업 세금 부과 규정 제정(3/17, 연합뉴스)

- 17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부문 법규집'(2012년 11월 발행)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을 채택함.
- 이 세금규정은 적용 대상과 관련해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된다"며 외국인, 남측 및 해외동포와 이들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명시함.

3.18-3.24

3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10년만에 경공업대회...김정은 “경공업에 역량집중”(종합)(3/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0년 만에 평양에서 개최된 전국 경공업 대회에 직접 참석해 육성연설을 통해 경공업 발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연설에서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려면 농업 전선과 함께 경공업 전선에 힘을 집중해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며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속에서도 당 중앙은 전국 경공업대회를 열도록 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무인타격기·대공미사일 발사 훈련 지도(종합)(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일 항공군과 포병부대 훈련 현장을 찾아 무인타격기 공습과 대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초정밀 무인타격기의 대상물 타격과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 순항미사일(미사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켓트(지대공미사일) 사격훈련을 지도하였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장거리를 비행해 목표를 정확히 타격한 초정밀 무인타격기에 대해 속도가 빠르며 목표식별능력도 대단히 높다고 평가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내달 1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대의 메시지 주목(종합)(3/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내달 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대의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알리는 공시를 발표하고 이달 30~31일 대의원 등록을 하도록 함.

- **北노동신문 “군민대단결로 승리하자”…주민결속 독려(3/22,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총폭발시켜야 한다”며 주민 결속을 독려함.
 - 신문은 이날 ‘군민대단결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시와 다름없는 초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당과 군대와 인민이 굳게 뭉친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역사적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침략책동의 초점과 공격의 화살을 해당 나라의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데 돌려왔다”며 ‘군민대단결’을 통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결사용호’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전쟁 위협 속 김일성 생일 준비도 ‘척척’(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1번째 생일(태양절·4월15일)을 경축하는 국제준비위원회가 지난 1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결성됐고 관련 결정서가 발표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보도함.
 - 국제준비위는 결정서에 따라 ‘태양절’을 즈음해 집회, 사진·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등을 조직하고 출판물이나 보도매체를 통한 선전활동을 전개함.

- **北 김정은, 인민군 11군단 관하 특수부대 시찰(종합)(3/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2일 ‘오중흡7연대’ 칭호를 받은 인민군 제1973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께서 이 부대를 중시했고 나도 제일 중시하는 부대, 당이 믿는 부대”라며 “오늘 이 부대를 시찰한 데는 깊은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그는 ‘적 지역 지형사관’과 부대 작전계획을 보면서 부대장으로부터 부대의 작전 전투임무 수행과 훈련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부대 앞에는 적의 아성을 타고 앉아야 할 중요한 임무가 맡겨져있다”라며 “일단 싸움이 터지면 적의 심장부에 벼락같이 돌입해 맡은 군사대상물과 괴뢰 반동통치기관을 불이 번쩍 나게 타격·소멸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김정은, 후방교란 임무 특수부대 이틀 연속 시찰(종합(3/24,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2일 인민군 제1973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한 데 이어 23일에는 이 부대 산하 2대대를 잇달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어제 군부대(1973부대) 지휘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영도사적만 보아도 부대에 대한 관심이 특별했고 중요시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말함.

김정은동향

- 3/18, 전국경공업대회, 3.18 평양에서 진행 및 김정은 黨 제1비서 연설(3.19,중통·중방·평방)
 - 최영림(보고)·김경희·김기남·문경덕·로두철·태종수 및 黨의 경공업관철에 앞장선 단위 일꾼들·노력혁신자들·중앙과 지방의 책임일꾼 등 참석
 - 김정은은 연설에서 ‘경공업전선은 농업전선과 함께 현시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화력을 집중해야 할 주타격 방향임.’
 - 그런데 ‘지금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 데 대한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며,
 - 이의 심각한 문제로 ‘△ 원료·자재의 수입의존, △ 일꾼들의 사업부진에 대한 패배주의 및 수입 병(돈벌 생각 우선), △ 오분열도식 일본새’ 등으로,
 - 3/19, 김정은 黨 제1비서, 3.19 전국 경공업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3.19,중통·중방·평방)
 - 최영림, 김경희, 김기남, 문경덕, 로두철, 박봉주, 리무영 등 참가
 - 3/20, 김정은 黨 제1비서, 3.20 초정밀 무인타격기의 대상물 타격과 敵 순항미사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케트(지대공미사일) 사격훈련 지도(3.20,중통·중방)
 - 최룡해, 리병철, 박정천, 손청남 동행 및 항공·반항공군·포병부대 지휘관들 마중
 - 3/22, 김정은 黨 제1비서, 3.22 제1973군부대 지휘부 시찰(3.23,중통)
 - 최룡해, 황병서, 박정천 동행
 - 김정은, 3.22 세포등판개건공사장에 ‘선물’ 전달(3.22,중통)
 - 3/23, 김정은 黨 제1비서, 3.23 제197군부대 관하 2대대 시찰(3.24,중통·중·평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격식, 황병서, 손철주 동행 및 제630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영접
 - 3/23,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학생소년들의 ‘배움의 천리길’ 답사행군 참가자들에게 선물 전달(3.23,중통)
 - 리영수(黨 부장), 전용남(청년동맹위원장) 등 참가 下 현지에서 전달모임 진행
 - 3/24, 김정은 黨 제1비서, 3.24 인민군대 여러 부문사업 지도(3.25,중통·중·평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격식, 김경옥, 럽철성 등 동행
 - 김정은, 3.24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와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조하고 있는 식당배 ‘대동강’호도 시찰(3.25, 중통·중·평방)
- ※ 수행 간부未언급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내각 총리, 黃北 수안군 임농복합경영방법도입 정형(산림토지에서 나무와 농작물, 약초 등을 결합 재배) 현지 요해(3.21, 중통 중방)

나. 경제

● 北, 지난해 무역·세관법 개정…내각 권한 확대(3/18,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해 무역과 세관 분야에서 내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부문 법규집’(2012년 11월 발행)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무역법, 세관법, 출입국법을 각각 개정함.

다. 군사

● 北, 무인타격기 실전배치 첫 공개(3/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공군과 포병부대 훈련 현장을 찾아 무인타격기와 대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보도함.
- 북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바퀴 달린 3대의 견인 차량에 각각 실린 3대의 무인타격기 모습이 드러났으며, 지난 2011년부터 북측이 무인타격기를 개발 중이라는 첩보가 군과 정보 당국에 입수됐지만 실전 배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임.

● 北, 공습경보 발령 1시간만에 해제(3/2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대내용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은 21일 9시 30분께 “전체 군인들과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공습경보입니다”라며 “각급 부대들과 단위들에서는 적의 공중타격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겠습니다”라고 전함.

- 방송은 공습정보를 발령하면서 “조선인민군방송입니다”라고 밝혀 군 방송 내용을 대내용 라디오를 통해 전한 것으로 보임.

라. 사회·문화

- 北 “올 봄철 식수기간에 6억6천만 그루 심을 것”(3/20, 연합뉴스)
 - 북한은 올 봄철 국토관리총동원사업 기간에 총 6억 6천40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관계자가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국토환경보호성 전철수 부국장은 이날 조선중앙방송과 인터뷰에서 “저지대에서는 3~4월, 고지대에서는 4~5월 나무심기와 종자파종을 비롯한 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자체 실정에 맞게 30일씩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함.
 - 전 부국장은 이번 국토관리총동원사업 기간에는 ‘세포등판’(강원도 일대 대지) 방풍림 조성과 맨땅이 드러난 곳에 잔디 입히기, 비좁은 도로 개선사업, 평양시 원림녹화사업, 해안방조제 보강공사 등도 전개된다고 설명함.
- 北 산림면적 20년 사이 31% 감소(3/19, 연합뉴스)
 - 북한의 산림 면적이 20년 사이에 31%나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유엔개발계획(UNDP)은 지난 15일 발표한 ‘2013 인간개발지수’(HDI) 보고서에서 북한을 종합순위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산림 면적 감소율과 유무선 전화 가입자 비율 등 일부 통계를 공개함.
 -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산림 면적은 1990년에 비해 2010년 현재 30.9%가 감소했고 2011년 현재 북한의 동식물 가운데 멸종위기에 처한 종은 8.6%에 달함.
- 북한 엘리트들, 사치품 구입에 ‘문제 없네’(3/20, 연합뉴스)
 -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엘리트들은 중국에서 최신형 카메라나 평면TV 등 사치품 구입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인근 상점들은 북한 주민들이 평양행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냉장고나 세탁기를 구입하는 등 쇼핑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힘.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매체, ‘불타는 백악관’ 선전…실제는 의사당 사진(3/18,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TV)**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가 18일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영상물을 내보내면서 미국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헛갈리는 실수를 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이 사이트는 미국을 겨냥한 ‘전쟁의 아성에 불벼락치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미국 의사당과 폭발 장면을 합성해 내보내면서 “백악관이 장거리 미사일의 조준경에 잡혔다. 전쟁의 아성이 원자탄의 타격권에 들었다”라는 자막을 함께 내보냄.
- **北, 라오스와 IT협력 강화 합의(3/22, 자유아시아방송(RFA); 비엔티안타임스)**
 - 북한이 라오스와 IT(정보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라오스 국영 비엔티안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정성찬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 대표단은 최근 라오스를 공식 방문해 사콘 차른봉 라오스 과학기술부 차관과 만나 IT협력에 관한 합의문을 작성함.
 - 이번 합의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 개발과 사용에 관한 경험 공유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기준 확립·품질 검사·규정 마련 등에서의 정보·경험 교환 ▲공동 기술교육 추진 ▲대표단 교환 ▲학술잡지 공동발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北, 댐공사 지연으로 탄소배출권 사업 차질(3/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려던 북한의 계획이 수력발전소 공사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체코 전력회사인 토픽 에너고사(社)의 북한사업 책임자 미로 슬라브 블라젝 씨는 지난달 북한이 유엔에 신고한 친환경 시설물이 완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북하려 했다가 뒤늦게 계획을 취소함.

- **北, 日아베 총리 발언 비난...“대결광신자”(3/23,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최근 북한에 ‘멸망’을 경고한 데 대해 ‘악다구니질’이라며 “반공화국 대결광신자로서의 정체를 또다시 드러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우리는 이미 전에 일본이 우리 혁명무력의 과녁 안에 들어 있으며 전쟁의 불이 튀긴다면 일본도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데 대해 경고했다”며 “멸망의 운명은 정치적 주견도 없이 미국에 맹종하면서 쫓대 없이 놀아대는 일본에 차례질(돌아갈) 것”이라고 밝힘.

- **北매체 “美와 대화 필요성 느끼지 않아”(3/23, 민주조선)**
 -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3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조미관계는 이제와서 말로 할 때는 이미 지났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앉아 더이상 할 말도 없다”며 “미국과는 말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고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함.
 - 논평은 “최근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이 저마끔 나서서 ‘미국은 북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느니 ‘보상이 있을수 없다’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해대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조선신보 “美의 투트랙 전략, 정세폭발 초래할 수도”(3/24,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대북 압박과 대화 노력을 병행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 투트랙 전략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전쟁방지의 방도는 조미(북미) 대결사 청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에 대한 적의와 반감을 품은 미국의 '투트랙' 전략은 현재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정세폭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선이 천명한 '정전협정의 완전 백지화'는 (한미) 합동군사연습 기간에만 적용되는 시한부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힘.

기타 (대외 관계)

- 중국 「술人代」 제12기 제1차 회의(3.5-17) 소식 및 中(신화통신)·러·美·日 통신·신문 등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3.17 보도(3.18,평방·중통)
- 조선인민군 방송, 3.21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공습경보(적의 공중타격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 발령(09:30)·해제(10:28) (3.21,중방)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 기자 問答(3.14)을 3.18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S/2013/162호'로 배포 (3.21,중통·중방)
 - 中 보도사·러·英·日 통신 등, 3.20 '김정은, 초정밀무인타격기의 대상물타격과 자행고사로켓 사격훈련 지도' 소식 보도(3.21,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 핵시설 20곳에 3천명 근무 추산(3/18,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는 20개의 핵시설이 존재하며 이들 시설에 약 3천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함.
- CRS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9개국의 핵무기 연구개발 조직'(Nuclear Weapons R&D Organizations in Nine Nations)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원자력공업총국 산하에 여러 개의 핵 관련 조직과 연구소, 연구센터, '동위원소응용위원회'와 '핵에너지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고 밝힘.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공업총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실무적 총괄 기구로 플루토늄 시설로 알려진 영변 핵 연구소와 평양의 핵 에너지연구소도 지휘함.

● 북한 "미국 '핵위협'이 핵무기 경쟁 부추길 것"(3/19, 연합뉴스)

- 북한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핵위협'이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체 핵무기 개발에 나서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북한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재래식 무기 규제조약 협상 첫날 최신 핵보유 국가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강력한” 위상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공세를 강화했음.
-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리동일 차석대사는 “최대 핵보유 국가(미국)의 핵 선제 타격 정책 지속이 결국에는 더 많은 핵보유 국가를 낳게 될 것임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함.

● **北 조평통 “핵전쟁 도발자들 자멸할 것”(3/20,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0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부장관의 한국 방문을 비난하며 “핵전쟁 도발자들은 자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남조선을 행각(돌아다님)한 미 국방성 부장관 카터는 국방부 장관 김관진, 외교부 장관 윤병세를 만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모의를 벌였다”며 “미국은 괴뢰들을 무모한 북침도발로 부추겨댔다”고 비난함.
- 대변인은 “미국은 지금까지 합동군사연습의 간판 밑에 남조선에 해마다 방대한 핵전쟁 장비를 끌어들이며 전쟁도발의 기회만을 노려왔다”며 “미국은 전략폭격기 ‘B-52’든 핵잠수함이든 우리의 조준타격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핵무기 개발 기술적 난제에 봉착(3/22,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기술적 난제 뿐만 아니라 도의적 위기에도 봉착했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가 22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이 핵폭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을 얻었지만 무기 제조의 각도에서 보면 핵무기 실전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핵폭파 장치가 아직 소형화를 이룩하기에는 어렵다고 전함.

● **北 “유엔 인권결의는 정치협잡행위...전면 배격”(종합)(3/22,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협잡 행위”라면서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2일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인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놀음에 중지부를 찍고 미국의 국가 주권 유린행위부터 문제시해야 한다”고 전함.
- 대변인은 “최근 우리와의 정치·군사적 대결에서 연이어 참패를 당하고 궁지에 몰린 미국은 추종세력을 발동해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피우는 것으로 우리를 어찌 보려는 가소로운 짓을 한다”라며 “우리는 정치적 대결과 모략의 산물인 이번 인권결의를 전면 배격한다”고 강조함.

3 대남 동향

- **北 통전부·225국, 대남 사이버 선전선동 총력(3/20, 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와 225국 등 대남 공작기관에 전담부서를 두고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선전선동’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에는 대남 선전선동 수단으로 뼈라나 단파라디오 방송 등을 이용해왔지만 최근에는 우리의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 내지는 ‘일제 항일 투쟁시기의 총과 같은 무기’로 인식하면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北 외무성 “B-52 한반도 재출격시 군사적 대응”(종합)(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0일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차 출격하면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전략폭격기 B-52의 움직임에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에 다시 출격한다면 적대세력들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조선반도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전략적 핵타격수단을 조선반도에 끌어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초강경 의지를 떠보려는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함.

- **北, 美 B-52·핵잠수함에 반발…“핵공격으로 맞설 것”(3/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R)가 끝나는 21일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강한 핵 공격으로 맞설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1일 밝힘.
 -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의 핵잠수함과 B-52 전략폭격기가 한미군사훈련에 참가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의 노골적인 핵 공갈과 위협이 시작된 이상 우리(북한)도 그에 상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미국은 B-52가 이륙하는 광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잠수함이 발진하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의 해군기지도 우리 정밀타격 수단의 타격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독수리훈련에도 반발…“극악한 도발”(종합)(종합)(3/23, 연합뉴스)**
 - 지난 21일 종료된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맹비난해온 북한이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에 대해서도 “우리에 대한 극악한 도발이고 우리의 경고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반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23일 서기국 보도에서 “이 세상에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처럼 수십만의 대병력과 핵탄과 실탄을 장비한 최신 핵전쟁수단을 총동원해 남의 문전에서 무려 두 달 동안이나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벌리는 그러한 실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함.
 - 조평통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괴뢰패당이 일으키는 새 전쟁 도발에 전면 전쟁으로 대답해 나설 것이며 선제타격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며 “말로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는 힘에는 힘으로, 정밀 타격에는 초정밀 타격으로, 핵에는 핵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밝힘.

- **北 “유엔 北인권결의 앞장선 새누리당 벌초” 위협(3/24, 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와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난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권 시비는 곧 우리 제도와 존엄에 대한 도전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함.
- 담화는 “더우기 괴뢰정권이 바뀐후에 와서도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이 계속되고있을뿐 아니라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특별히 주목하면서 높은 적개심을 가지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의지들을 다지고 있다”고 밝힘.

■ 기타 (대남)

- 南 언론의 ‘北 인터넷 사이트 접속장애 자작극설’ 언급을 ‘북침도발을 위한 허황한 모략극, 對北 사이버공격이 사전각본에 따라 감행되었음을 반증해준다’고 비난(3.20, 중통·민주조선/공화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남조선이 조작한 모략극)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3.25-3.31

3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사흘째 군부대 시찰...전투장비 점검(종합)(3/2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흘째 군부대를 시찰하고 인민군의 각종 사업 현장을 찾는 등 활발한 군 현지지도 행보를 계속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이 보도함.
 - 매체는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날 인민군 제1501군부대를 찾아 이 부대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첨단전투기술기재’를 점검했다고 전함.
 - 이날 김 제1위원장이 방문한 부대는 작년 5월 23일에도 찾은 적이 있으며, 당시 그는 이 부대가 제작한 전투기술기재를 살펴본 뒤 “싸움 준비에 필요한 현대적인 기재들을 만들었다”고 치하하며 첨단전투기술기재를 연구·개발하도록 지시함.

- **北, 동해서 육·해군 합동훈련...김정은 참관(종합)(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5일 동해안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육·해군 합동으로 대규모 상륙 및 상륙저지 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북한은 이날까지 나흘째 김 제1위원장이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훈련을 지도한 사실을 거의 실시간 공개해 주목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날 동해에서 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와 제287대연합부대, 해군 제597연합부대의 상륙 및 반(反)상륙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함.

- **北 김정은, 軍선전간부회의 참석...사상 무장 독려(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8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군 선전일꾼회의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군 선전일꾼은 북한군에서 사상사업을 담당하는 간부를 가리키며 이날

- 회의에는 군중, 군단 정치위원, 육·해·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미사일)군, 각급 군사학교 등의 선전 간부들이 참가함.
- 김 제1위원장은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전군선전일꾼회의를 조직한 것은 사상의 위력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 전면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드팀없는(흔들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과시”라고 말함.

● **北 김정은, ‘남한물 든’ 군간부 복직 지시(3/29, 마이니치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른바 ‘남한물’이 들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은 조선인민군 간부를 ‘온정 정치’ 차원에서 복직하도록 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함.
- 신문은 북·중 무역 종사자의 전언을 토대로 쓴 베이징(北京)발 기사에서 김 제1위원장이 ‘남조선의 영향을 받아 사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임된 뒤 조사를 받아온 인민무력부 기관지 ‘조선인민군’의 김모 편집국장에게 대해 ‘1%의 양심을 믿어야 한다’며 업무에 복귀시킬 것을 지시하며, 이에 따라 지난 1월께 업무에 복귀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함.

● **北 김정은, 작전회의 긴급소집…“미사일 사격대기” 지시(종합)(3/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그는 긴급회의에서 “아군전략로켓(미사일)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들,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미사일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 서명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北 ‘최고사령부 성명’ 지지 대규모 군민대회(3/29,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9일 미국과 남한을 위협하는 내용의 군(軍) 최고사령부 성명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민대회를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와 내각,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간부, 군인, 학생, 근로자들이 참석했고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는 최고사령부 성명을 낭독함.

● 北 黨중앙위 전원회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종합)(3/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다”며 “(이 노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이 노선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이 구현했던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3/25, 김정은 黨 제1비서, 3.24 인민군대 여러 부문사업 지도(3.25,중통·중방·평방)
 - 최룡해, 현영철, 김격식, 김경옥, 럽철성 등 동행
 - 김정은, 3.24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와 인민군대에서 새로 건조하고 있는 식당배 ‘대동강’호도 시찰(3.25,중통·중방·평방)
- 3/25,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성애(인민보안부 산하단위 부원) 등 ‘좋은 일을 한’ 근로자·노동자들에게 ‘감사’ 전달(3.25,중방)
- 3/26, 김정은 黨 제1비서, 3.25 전선동부와 동해안에 위치한 ‘육군 대연합부대들’ 및 ‘해군 연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작전능력 최종검열(3.26,중통·중방·평방)
 - 육군 324·287대연합부대 및 해군 제597연합부대 지도
 - 현영철(軍 총참모장), 박정천(중장), 림광일(소장) 동행
- 3/28, 김정은 黨 제1비서, 3.28 전군선전일꾼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3.28,중통·중방·평방)
 - 최룡해(軍 차수, 보고), 현영철, 김격식, 김경옥, 손철주, 럽철성, 조경철 참가
- 3/29, 김정은 黨 제1비서, 29일 0시30분 전략로케트軍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 긴급소집 및 화력타격계획 최종 검토·비준(3.29,중통·중방·평방)
 - 현영철(軍 총참모장), 리영길(작전국장), 김영철(정찰총국장), 김락겸(전략로케트軍 사령관) 참가
 -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김영철 육군대장으로부터 미군 핵타격수단들의 행동성격에 대한 적정

- 조희 보고 및 김락겸 육군중장의 아군(北)전략타격수단들의 기술상태 보고를 받고 중대한 결심.
- ‘미제의 핵공격에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아군(北) 전략로켓들이 임의의 시각 북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 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주한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
 - 3/31, 김정은 黨 제1비서, 3.31 당중앙위 정치국 및 중앙군사위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3.31, 중통·중방)
 -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경희, 김격식,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양형섭, 김영춘, 리용무,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김정각, 리명수,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로두철, 주규창, 김창섭, 리병삼, 조연준, 태중수 등 참가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사령부 성명 지지 평양시 軍民대회, 3.29 김일성광장에서 진행(3.29, 중방)
- 김영남, 최영림,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김양건, 곽범기, 문경덕, 노두철, 리일환 등 참석
- 최영림(내각총리), 平北 양책베아링공장·룡천군 장산협동농장 등 현지요해(3.29, 중통)
- 北, 3.31 ‘黨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당의 과업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 제출할 간부문제 및 조직문제에 대한 의정들을 상정하고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3.31, 중통·중·평방)
- 전원회의는 구체적 과업으로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증대,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역량집중을 통한 단기간내 인민생활 안정 △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개발사업 추진 △우주과학기술발전을 통한 통신위성 등 발전된 위성들 개발 발사 △지식경제로의 전환과 대외무역의 다각화·다양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핵무력의 법적 고착과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력의 질량적인 확대 강화 등 명시

나. 군사

● 北 “초강경대응은 전통적 방식” 주민 독려(3/27, 조선중앙방송)

-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27일 “초강경대응은 선군 조선의 전통적인 투쟁방식”이라며 “우리에게는 적들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있다”고 전환.
- 방송은 6·25전쟁에서 김일성 주석이 미국의 ‘항복서’를 받아냈으며 이후에도 푸에블로호 사건, 판문점사건 등 미국의 ‘도발’을 초강경대응으로 물리쳤다고 주장함.

- **北 軍총참모부 새 작전국장에 리영길 前 5군단장(3/29,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에 리영길 전 5군단장을 임명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날 오전 0시 30분 전략로켓(미사일)군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보도하면서 “작전회의에는 총참모장 현영철, 작전국장 리영길, 정찰총국장 김영철, 전략로켓군사령관 김락겸이 참가했다”고 밝힘.
 - 2002년 4월 군 중장(우리의 소장)이 된 리영길은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지난해 상장(우리의 중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보임.

- **北 중·장거리미사일 부대 움직임 급증…軍 정밀감시(종합)(3/29, 연합뉴스)**
 -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 부대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돼 군 당국이 발사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29일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 부대에서 차량과 병력의 움직임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관측됐다”면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 **北, 주요전력 현황 노출…기밀누설 했나(3/29,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9일 공개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긴급 작전회의 주재 사진에 북한의 주요 전력 현황이 노출돼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발행한 사진에는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의 작전계획도가 나와 있고 그 오른쪽으로 주요 전력의 현황이 일부 공개됨.
 - 사진에 찍힌 주요 전력의 현황을 보면 잠수함 40척, 상륙함 13척, 소해함(기뢰전함) 6척, 보조함선(지원함정) 27척, 비행기중 1천852대 등임.

다. 사회·문화

● 北, 1만6천쪽 분량 새 백과사전 발간(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04년부터 발간 작업을 추진해온 '광명백과사전'이 완간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이 사전은 북한역사, 세계역사, 정치, 법, 철학, 경제, 문학 예술, 교육, 어학, 출판보도, 북한지리, 세계지리,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정보, 조종, 나노기술, 체육 등 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를 전체 20권에 나눠 담음.

● 北, 평양 중심부에 대형공원·지하 슈퍼마켓 건설(3/27, 조선신보)

- 북한이 평양 중심부인 만수대지구에 대규모 화초·분수공원과 지하 슈퍼마켓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7일 전함.
- 조선신보는 “만수대지구에서 화초·분수공원 및 지하 편의상점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라며 “올해 10월 10일(노동당 창건일)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함.

● 北, 올해 자동기상관측설비 80여곳 설치(3/28, 조선신보)

- 북한이 일기예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평양과 지방 등 80여곳에 자동기상관측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8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자동기상관측설비는 온도와 습도, 기압과 강수량, 바람의 방향과 속도 등 기상관측에 필요한 요소들을 신속·정확하게 측정하고 전송망을 통해 해당 부문에 측정자료를 전달해 예보 활동을 개선하는데 쓰이게 된다”며 “가까운 기간에 수백 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함.

● 北 고려링크 “외국관광객 모바일 인터넷 사용 중단”(3/29,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부터 허용한 외국인의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한 달여 만에 중단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북한에서 독점적으로 휴대전화사업을 하는 '고려링크' 관계자는 28일(현지 시간) 외국인 전용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일반 관광객 대상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중단하고 외교관 등 장기체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힘.

● **北, 장애어린이 치료·교육 전문센터 개소(3/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장애어린이 치료와 교육을 위한 전문시설인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을 개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이날 장애어린이회복중심 개교식이 열렸으며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함.

● **북한 일부 웹사이트 이틀째 접속불안(3/31, 연합뉴스)**

- 북한의 일부 인터넷 매체 홈페이지에서 31일 이틀째 일시적인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전함.
-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해 '우리민족끼리', '내나라', '조선의 소리'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이 안 되다가 오전 11시 30분을 전후해 정상적인 접속이 이뤄짐.

2 대외 관계

가. 일반

● **북한, 중국서 은 660kg 수입...어디 썼나(3/28,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월 이례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은(銀)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28일 중국 해관(세관)에 따르면 북한은 1월 중국으로부터 661.71kg의 은을 수입했으며 65만3천128 달러(약 7억2천600만원)가 투입됨.

● **북한, 관광객 유치 총력...관광총국장 방중(3/28, 연합뉴스)**

-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이 크게 고조된 속에서도 북한이 관광업무 실무 책임자를 중국에 파견, 자국 관광 홍보에 나서는 등 관광객 유치에

-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2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도준 조선관광총국장이 최근 관광객 유치 활동 차원에서 중국을 찾았으며 베이징, 상하이, 산시(陝西)성 등을 돌면서 중국 지방 정부의 여유국(여행국) 관계자 및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두루 접촉한 것으로 전해짐.

● **캠핀스키, 北류경호텔 개장계획 보류(3/29, 연합뉴스; NK뉴스)**

- 독일 캠핀스키 호텔그룹이 북한 평양에 건설중인 류경호텔의 객실을 올해 개장하려던 계획을 ‘시장 상황’ 때문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는 29일 캠핀스키 그룹이 북한 내 ‘시장상황’(Market Conditions) 때문에 평양에 건설중인 류경호텔 105층의 객실 개장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北 “한반도 핵문제 관련국, 전쟁·평화 입장 밝힐 때”(3/28,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한반도에서 핵 문제와 관련된 국가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날 ‘세계는 핵전쟁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사실 조선반도(한반도) 핵 문제를 놓고 책임있는 나라들이 자기의 주권을 세우고 응당한 의무를 다였다면 오늘과 같이 침예한 정세가 조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미제에 의하여 강요되게 될 조미(북미) 사이의 핵전쟁은 결국 양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함.
- 또한 “지금이야말로 조선반도 핵 문제와 관련된 나라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자기의 입장과 자세를 명백히 밝힐 때”라며 “평화를 바라고 정의를 사랑한다면 그 누구든지 미제의 무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엄중시하고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덧붙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천안함 사건은 南·美 음모의 산물” 주장(3/26,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천안함 사건 3주기인 26일 이 사건이 미국과 한국이 만들어낸 ‘음모의 산물’이며 남북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전함.
 - 신문은 이날 ‘46명의 생명을 제물로 삼은 극악한 음모’라는 글에서 천안함이 우리 군 등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백령도와 대청도 근해에서 침몰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괴뢰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선 침몰원인을 우리와 무작정 연관시켰다”고 주장함.

- 北매체, 김관진 장관 연일 비난…“첫 별초대상”(종합)(3/26,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대남 선전용 매체를 동원해 최근 유임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첫 별초대상이 될 것”이라며 연일 비난함.
 -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개인필명의 글에서 “유임되자마자 기자들과 만난 김관진이 ‘웅장’이 어찌고저찌고 객기를 부려뒀다고 한다”며 “극악한 대결 망발을 뉘쳐댄(지껄인) 짓은 북침 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는 흥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함.

- 北조평통 “南 새 정권도 동족대결의 길 간다” 비난(3/26, 연합뉴스)
 - 북한은 26일 남한의 일부 언론이 보도한 ‘김일성 부자 동상 정밀타격 계획’에 반발, “남조선의 새 정권이 리명박 역적패당과 다름없이 동족대결의 길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괴뢰군부 깡패들이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의 대도시들에 정중히 모신 우리의 최고 존엄의 상징인 수령 영생, 수령칭송의 기념비들을 미싸일로 정밀 타격할 계획을 짜놓았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北 “실제적 군사행동에 핵 선제 타격 포함” 위협(3/27,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자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27일 주장함.
 - 신문은 이날 ‘전당, 전군, 전민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떨쳐나서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휘세력 타격을 거론한 ‘한미연합군 작전계획’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우리 군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타격계획은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힘.
 - 또한 “미국 본토와 남조선, 조선반도 주변지역의 미제침략군 기지들과 모든 적대상물들이 우리 조준경 안에, 우리 군대의 타격권 안에 들어 있으며, 핵탄을 포함한 정밀 타격수단들이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다”며 ‘핵 공격’ 가능성을 거듭 거론함.

- **北,朴대통령 천안함 추모사 비난(3/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도발이고 주제넘은 도전”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천안호 사건 3년을 계기로 남조선 일대 반공화국 대결 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26일 대전 현충원에서 진행된 그 무슨 ‘추모식’이라는 데서 청와대 안방주인이 ‘추모사’라는 것을 했다”며 이같이 주장함.

- **軍통신선 끊은 北, ‘군사적 행동’ 과시 이어질까(3/27, 연합뉴스)**
 - 북한이 27일 전격적으로 남북 군사 당국간 통신선을 차단함으로써 본격적인 군사적 행동 과시에 들어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장성급 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전화통지문을 통해 군 통신선 단절 입장을 전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의지는 실제적인 물리적 대응으로 계속 과시될 것”이라고 말함.

- **北조평통, 한미 ‘국지도발대비계획’ 비난(3/28,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8일 한국과 미국이 최근 서명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침략전쟁포고”라며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내고 “최근 미국과 괴뢰 패당은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라는 침략문서를 조작해 전쟁위험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며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 매우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문서로서 우리에게 대한 노골적인 침략전쟁포고”라고 주장함.

● **北매체, 美 B-52 격추 ‘그래픽 영상’ 공개(3/29, 우리민족끼리TV)**

-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가 미군의 B-52 전략폭격기를 격추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20일 공개함.
- 29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걱정되는 것은 남조선이다’라는 제목의 UCC 동영상(4분27초 분량)에는 한반도 상공에 막 진입한 B-52 한 대가 북한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맞아 격추되는 장면이 담겨 있음.
- 이 동영상은 “B-52는 대도시를 10번이나 파괴할 수 있는 핵타격 미사일을 20개쯤 싣고 다니며 수소폭탄도 대량투하할 수 있다”며 “그것은 핵우산이 아니라 미국이 남조선에 쏟아부을 끔찍한 핵소나기”라고 비난함.

● **北, 대남기구 앞세워朴대통령 비난수위 높여(3/29, 연합뉴스;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모략험담들이 청와대에 새로 들어앉은 안방주인의 독기서린 치마바람에 의해 우심해지고(더 심해지고) 있는데 대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비난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도 이날 ‘화를 툭툭히 입게 될 안방주인’이라는 글에서 “도발의 구멍수만 노리는 호전광 김관진을 군부 우두머리로 올려 앉힌 청와대 안방주인도 화를 툭툭히 당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北 “남북관계, 전시상황 돌입” 선언(종합2보)(3/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이 시각부터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선언함.

- 통신은 이날 발표한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며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는 끝장났다”고 전함.
- 성명은 “미국과 괴뢰패당이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고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첫 타격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가 녹아나고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는 물론 청와대와 괴뢰군기지도 동시에 초토화될 것”이라고 위협함.

나. 경제 · 사회 · 문화

● 개성공단 근로자 출경...北 개성공단관리위 유선통보(종합)(3/28, 연합뉴스)

- 북한이 서해지구 군(軍) 통신선을 단절했음에도 불구하고 28일 오전 우리 측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출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정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측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유선통화로 출경 승인사실을 알려왔다”고 전했으며 북한의 군통신선 전면 단절에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 北 “우리 존엄 훼손하면 개성공단 폐쇄”(종합)(3/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0일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통신은 이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나발질(헛소리)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대변인은 “괴뢰패당과 어용언론은 개성공업지구 출입이 간신히 이루어지는 데 대해 ‘북한이 외화수입 원천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다’느니, ‘북한의 두 얼굴’이니 하며 우리의 존엄까지 모독해 나서고 있다”고 비난함.

■ 기타 (대남)

-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3.27 ‘위임에 따라 남북 軍통신 단절 및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軍통신연락소 북측 성원들 활동 중지’ 통보 「전통문(11:20, 南 軍당국 앞)」 발송(3.27, 중통·중방)
·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개설된 북남 軍통신은 의미를 상실했음.
- 北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3.30), ‘△이시각부터 南北관계는 전시상황에 돌입하며 남북간 모든 문제를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 △군사적 도발시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 △속전속결·입체전으로 대결광신자를 벌초하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위협(3.30, 중통)
- 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3.30 南 언론 등 ‘北 軍통신 단절’에 따른 개성공단 출입 전망 보도 등(北이 외화벌이 수단인 개성공단에는 손을 대지 않을 것 등) 관련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려든다면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담화’ 발표(3.30, 중통·평방)

4.01-4.07

4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군사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인민보안부장에 최부일 임명 확인(4/1,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자 4면에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보선된 노동당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의 프로필을 공개, 최부일 전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이 “2013년 2월부터 인민보안부장으로 사임했다”고 밝힘.
 -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최부일은 1944년생으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졸업 후 군단 참모장,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군단장,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을 역임한 전형적인 군인 출신임.

- **北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사진 돌연 취소 눈길(4/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날 송고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회의 사진을 이례적으로 모두 취소함.
 - 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통신사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와 관련하여 1일 전송한 사진을 모두 취소합니다”라고 밝혔고 구체적인 취소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조선통신사 측도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힘.

- **北, 박봉주 새 내각에 실무형 관료 중용(4/2,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혁파 경제관료로 알려진 박봉주를 내각 총리로 재기용하고 장관급 인물도 대거 교체하면서 새 내각 진용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들은 2일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회의 소식을 보도하면서 “일부 내각 성원을 해임 및 임명했다”고 밝히고 새로 임명된 리무영, 리철만, 강영수, 배학, 리혁, 리춘삼, 김경준, 강하국, 태형철 등 9명의 내각 상(장관급)을 소개함.

- **北 김정은 “핵포기 중동국, 침략의 희생물로 전략”(4/2,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몰락 사례 등을 연상시키는 ‘중동국가들의 교훈’을 거론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전함.
 - 신문은 1, 2면을 할애해 김 제1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보고내용 전체를 2일 게재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보고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강조하며 “대국들을 쳐다보면서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중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北, 기자동맹 대표자회 12년 만에 개최(4/3, 노동신문)**
 - 북한 언론인들의 사상교양단체인 조선기자동맹 대표자회가 2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 열렸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전함.
 - 조선기자동맹이 전국 규모의 회의를 연 것은 2001년 11월 개최한 조선기자동맹 제8차 대회 이후 12년 만임.
 - 신문은 “대표자회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출판·보도·무력부문의 기관, 각도·직할시 동맹대표회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참가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지난달 군수공업회의서 포탄생산 강화 지시(4/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5일 공개한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주체102 2013.3 전편’ 기록영화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군수공업부문 일꾼협의회를 지도했다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신속하면서도 불의적인 타격으로 적들의 군사요충지와 반동 통치기관을 쳐부숴 버려야 한다”며 포 무기와 포탄 생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함.
 - 그는 “포와 포탄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적 대상물에 대한 선제타격과 불의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지금 적들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있는 조건에서 신뢰성 있는 포무기와 포탄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4/4, 김정은 黨 제1비서(4.11),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4.13) 1돌 즈음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 4.4 양형섭·김용진(내각부총리) 등 참가下 평양대극장에서 진행(4.4,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 4.1 김정은 참가下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4.1, 중통·중방·중앙TV)
 - ① 사회주의헌법 일부 수정보충, ② 금수산태양궁전법, ③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할데 대한 법령, ④ 우주개발법, ⑤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움에 대한 결정, ⑥ 내각의 2012년 사업 정형과 2013년 과업 대하여, ⑦ 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3년 예산에 대하여, ⑧ 조직 문제 채택
 - 박봉주 → 내각총리, 최영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으로 선거/김정각·리명수 → 국방위 위원에서 해임, 김격식·최부일 → 국방위 위원으로 보선/태형철 → 상임위 서기장에서 해임, 홍선옥 → 상임위 서기장으로 선거
 - 리무영(내각부총리 겸 화학공업상), 리철만(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강영수(도시경영상), 배학(원유공업상), 리혁(수산상), 리춘삼(국가자원개발상), 김경준(국토환경보호상), 강하국(보건상), 태형철(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임명
 - 김영남, 최룡해, 박봉주, 최영림, 장성택, 김경희, 현영철, 김격식, 김기남,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이용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태종수, 김정각, 리명수, 김영대, 류미영 등 참석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4.1 인민극장에서 공훈국가합창단 공연 관람(4.1, 중통)
- 김정은(黨 제1 비서)의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제시·채택 黨 중앙총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결론’ 전문 보도(4.2, 중통·중방·노동신문)
 - 현시기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임.
 - 모든 일꾼-당원-근로자들은 당이 제시한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승리의 신심 드높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함.
 -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며 김일성 父자의 ‘병진노선 제시-계승발전’ 칭송(4.2, 중통)
 - 신은후(임업성 부상)·김철호(대성구역 黨 委 부장)과 한우길·천기철(노동자)·김창영(군관) 등, ‘병진노선 지지 및 관철의지’ 반향(4.2, 평방·중방·중통)

나. 군사

- 北 “올해 국방예산, 지출총액의 16%”...작년比 0.2%p ↑ (4/2, 노동신문)
 - 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광진 북한 재정상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12기 7차회의에서 “국가 예산에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해 적들과 전면대결전을 벌려나갈 수 있도록 지출 총액의 16%를 국방비로 돌린다”고 밝힘.

다. 사회·문화

● 北, 새 학제에 맞춘 2013학년도 시작(4/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방송은 1일 “오늘 전국 각지 학교에서 새 학년도가 시작된다”고 전함.
- 엄대성 내각 교육위원회 부국장은 중앙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늘 온 나라의 보통교육 부문과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교수 교양을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를 빈틈없이 하고 새 학년도 첫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함.

● 北, 국제축구학교 설립...“외국인도 유학 가능”(4/4, 조선일총연합회)

- 북한이 평양 국제축구학교를 설립하고 이달 중 개교할 예정이라고 재일본 조선일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4일 전함.
- 신문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평양 국제축구학교가 설립됐다”며 “능라도 지구에 세워진 평양 국제축구학교는 4월 중으로 개교식을 갖게 된다”고 밝힘.

● 北, 생활문화 사업 독려...“일터와 가정 꾸미자”(4/7,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된 상황에서 “봄철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을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문화사업을 독려함.
- 신문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에 적극 떨쳐나서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늘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이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고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을 훌륭하게 꾸리며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한반도 긴장 속 국제사회 대북 지원 이어져(4/2, 자유아시아방송(RFA))**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일 전함.
 -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SIDA)이 올해 북한에서 620만 달러(약 69억원) 규모의 식수 및 위생 사업 등을 벌인다고 밝힘.

- **北, 중국 주요 도시 직항노선 개설 잇달아(4/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고려항공이 상하이, 난징(南京)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직항로를 잇달아 개설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4일 전함.
 - 고려항공은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난징과 평양 사이 직항 노선을 임시 개통하고, 상하이-평양 직항도 이달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운항할 예정이며, 두 노선은 모두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 운행됨.

- **유엔 세계식량계획 3월 대북지원, 전월대비 35% 감소(4/4,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지난 3월 대북 식량 지원규모가 전달보다 35%가량 줄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함.
 -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담당 대변인은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약 17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대북지원 모금 부진으로 이같이 식량지원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고 밝힘.

- **북-중 경협 상징 신압록강대교 건설 순항(4/4, 연합뉴스)**
 - 중국과 북한 간 신압록강대교 건설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 실험 이후에도 신압록강대교 양쪽 강변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각종 공정이 중단없이 추진되고 있음.

- **北, 해킹 피해 사이트 차단...해킹 트위터 계정 방치(4/5, 연합뉴스)**
 - 북한이 국제해커 집단 ‘어나너머스’(Anonymous)에 해킹을 당한 사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5일 전함.
 - 오전 9시 현재 해킹 피해를 본 우리민족끼리, 반제민족민주전선, 우리민족강당 등 대남선전용 사이트와 고려항공 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함.

- **일본, 독자적 대북 제재 2년 연장(종합)(4/5, 연합뉴스)**
 - 일본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해오던 제재를 2년 더 연장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전함.
 -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각의에서 오는 13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 선박 입항금지,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 등의 제재를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

- **北, ‘외국공관 철수 권고’ 언급 없어(4/5,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지난 5일 평양 주재 외국공관과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두고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이는 유엔 기구들에 이달 10일 이후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직원 철수를 위해 필요한 북한의 지원을 알려달라고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이 같은 권고를 러시아와 중국에는 별도로 전했고, 다른 외국 공관과 유엔 기구에는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 당국이나 매체들은 6일 오전 10시 현재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음.
 -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이 지난달 26일 내놓은 외무성 성명과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지난 1일과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문건으로 각각 배포했다고 전함.

나. 6자회담(북핵)

- **북한 3차 핵실험 ‘재료’, 끝내 판명 못할 듯(4/1, 워싱턴포스트)**
 - 북한이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우라늄과 플루토늄 중 어떤 핵물질을 썼는지에 대한 판단이 결국 불가능해질 전망이다라고 워싱턴포스트가 1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핵물질 분석가들이 이 판단을 뒷받침할 충분한 물리적 근거를 찾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함.

- **北, 핵무기 법령에서 ‘핵확산 방지’도 언급(4/2,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법령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면서도 국제적 현안인 ‘핵확산 방지’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대외용 평양방송은 2일 북한이 전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라는 법령의 전체 내용을 공개함.
 - 우선 북한이 최근 한미군사훈련에 반발해 ‘핵선제 타격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이 법령에서는 핵무기가 방어용이라고 주장함.

- **北 ICBM 시험발사 징후 속 中 국경지대 경계태세 강화(4/2, 워싱턴프리버컨(WFB))**
 -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부대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북한 국경지대에 군사적 대응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김정은의 오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워싱턴프리버컨(WFB)은 1일(현지시간) 전함.
 - 북한 미사일 기지의 위성화면을 분석하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이 이동식 중단거리 미사일 부대를 포함한 미사일 부대들에 대해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힘.

●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핵무기 생산의지 천명(종합3보)(4/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일 MW급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 6자회담 합의 파기와 핵무기 생산 의지를 조선중앙통신은 통해 전함.
- 통신은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이 기자회견의 문답에서 핵시설들의 용도를 조절변경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고 전함.
- 대변인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는 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지체없이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강조함.

● 北 “첨단핵타격 작전 최종비준...백악관에 정식통보”(종합)(4/4, 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대로 강력한 군사적인 실전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북한은 이날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미군의 B-52,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 핵잠수함, 구축함 등이 참가한 것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주장함.
- 담화는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분별없는 핵위협은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우리 식의 첨단 핵타격 수단으로 여지없이 짓부셔버리게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비준된 상태에 있음을 정식으로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밝힘.

● 北 노동신문 “핵보유로 경제건설에 자금 집중 가능”(4/5, 노동신문)

-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해 경제건설에 자금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전함.
- 신문은 이날 ‘새로운 병진노선 따라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조국이 핵보유국이 된 오늘 우리에게는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자금과 노력을 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됐다”고 밝힘.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대표, 4.1 유엔 군축위원회 연설에서 現 한반도 정세는 ‘미국의 對北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 및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인민군대는 핵무력의 경상적인 전투준비태세 완비” 등 천명(4.6, 중통)
- 北 ‘외무성·軍최고사령부 성명’, 4.1·4.2 ‘유엔 안보리 공식 문건 S-2013-194호·S-2013-196호’로 배포(4.5, 중방·중통)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무력과시용 ‘군사 카드’ 다시 준비(4/4, 연합뉴스)

- 북한이 ‘폭력적인 언사’로 대남·대미 위협 공세를 펼친 데 이어 실제 군사 도발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5MW(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음.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근로자들, 北 폐쇄 위협에 긴장 속 출경(종합)(4/1, 연합뉴스)

-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위협이 나온 가운데 1일 오전 우리 측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출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입경 승인을 우회 통보함.

- **개성공단 통행금지 속 근로자 3명 첫 귀환(4/3,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한 3일 오전 11시 50분께 근로자 3명이 처음 귀환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이들은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로 돌아옴.

- **北대남매체 “개성공단 덕 보는 것은 南기업” 주장(4/4, 우리민족끼리TV)**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TV’는 4일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 “개성공업지구에서 덕을 보는 것은 우리(북한)가 아니라 괴뢰 패당과 남조선 영세기업가들”이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TV는 “우리가 전시상황 속에서도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남조선 중소기업들의 생계가 달렸고 여기에 연관된 많은 남조선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 **北 “못된 말 계속하면 개성공단 北 근로자 철수” 위협(4/4, 연합뉴스)**
 - 북한은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 “남조선 괴뢰패당과 보수언론이 못한 입질을 계속하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북한)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개성공단에 들어와 있는 남조선 인원을 북침전쟁의 인질로 삼으려는 것은 다름 아닌 괴뢰 패당”이라며 이같이 밝힘.
 - 대변인은 “괴뢰 보수패당과 어용언론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어찌지 못할 것이라는 고약한 나발(헛소리)을 계속 불어댔다”라며 “우리 군대는 그에 대처해 개성공단에 대한 남조선 인원의 통행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함.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4.08-4.14

4 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박봉주, 첫 공개연설…“김정은 영도체계 확립”(4/8, 연합뉴스)**
 - 이달 1일 북한의 내각 총리에 다시 선임된 박봉주가 총리 취임하고 나서 8일 가진 첫 연설에서 “정권건설을 비롯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박봉주 총리는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0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국방위원회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제때에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전쟁위협’ 北, 노동신문엔 김정은 친필답장 ‘도배’(4/10,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자 1면 머리에 “김정은 원수님께서 각지 근로자와 교직원, 학생, 어린이들이 올린 편지를 보고 친필을 보냈다”라며 10건의 주요 친필답장 사진을 게재하고 1, 2면에 관련 내용을 소개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민들의 편지에 친필답장하고 서명한 날짜는 올해 2월 13일과 27일로 돼 있음.

- **밖으로 위기 조장하는 北, 내부선 ‘축제 열기’(종합)(4/10,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축제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14일 평양에서 김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국제육상연맹-제26차 만경대상마라톤경기대회’가 진행된다고 밝힘.

- **北 김영남 “김정은, 충정·도덕·의리의 최고 화신”(4/11, 연합뉴스)**
 -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 동지는 충정과 도덕, 의리의 최고 화신”이라고 찬양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김영남 위원장은 이날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및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보고를 통해 김정은은 제1위원장이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는 무적필승의 영장”이라고 칭송함.

● 北 김정은, 재일동포 자녀 교육비 지원(4/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정은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101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재일동포 자녀들의 교육원 조비와 장학금으로 1억9천830만 엔(한화 약 22억6천만원)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김정은동향

- 4/12, 김정은은 黨 제1비서, 4.11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에 모란봉악단 파견 및 화선공연 조치와 ‘선물’ 전달(4.12,중통·중방·평방)
 - 박봉주·최룡해(김정은 선물 전달)·장성택·김경희·김격식·김양건·황병서·손철주·렴철성·전창복·김장수 등, 모란봉악단과 대연합부대 축하방문
 - 군인들은 연속타격으로 놈들의 군사대상물들과 괴뢰반동 통치기관들을 사정없이 죽탕쳐버릴 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했음.
 -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4.12,중방)
- 4/13, 김정은은 黨 제1비서에게 사회정치학 박사 칭호(국제사회과학자연구소 전달) 수여식, 4.13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4.13,중방·중통)
 - 김영남, 리영식·리용철(黨 중앙위 부부장), 리혜정(사회과학원장), 김진범(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참석
 - 김영남, 4.13 만수대의사당에서 국제사회과학자연구소 이사들(비슈와나스·하리쉬 굽따 등)과 담화(4.13,중통·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9) 20주년 관련 동정】
 -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백두산총대로 최후승리 떨치리’, 4.9 김영남·박봉주 등 참가下 4.25문화회관에서 진행(4.9,중통·중방)
 - 유원철에게 인민배우칭호 등 수여(4.10,중통)

나. 경제

- 조선신보 “北 농장서 생산실적에 따라 현물 분배”(4/11, 조선신보)
 - 북한이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제도를 지난해 일부 농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실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11일에 밝혀짐.
 - 신문은 황해남도 재령군 삼지강 협동농장이 지난해 본보기 농장들의 사회주의증산경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분조관리제를 철저히 집행하고 포전담당제를 합리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장원들 속에서 자기가 맡은 포전에 대한 책임과 자각이 높아졌다고 한다”고 전함.

다. 군사

- 北 “발칸반도 ‘피의 교훈’ 되새겨야”...자위력 강조(4/10, 노동신문)
 - 북한이 발칸반도 사태를 ‘피의 교훈’으로 거론하며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전함.
 - 신문은 ‘발칸반도의 비극적 사태가 보여주는 피의 교훈’이라는 글에서 “발칸전쟁은 미국 주도하의 나토가 이전 유고슬라비아(신유고연방)를 반대해 일으킨 침략전쟁이었다”며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밝힘.
- 북한군, 신의주에서 ‘보란듯’ 낙하산 훈련(4/11, 교도통신)
 - 북한군이 11일 북중 접경지역에서 낙하산 훈련을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의주에서 최소 50명의 북한 병사들이 헬기에서 순차적으로 낙하하는 모습이 압록강 건너편의 중국 쪽에서 포착됐다. 훈련은 약 2시간 가량 진행됨.

라. 사회·문화

● 北 전방부대 영농작업...미사일 준비와 대조(4/11, 연합뉴스)

- 북한군 전방부대가 일제히 봄철 영농작업에 들어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미사일 발사 준비 작업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군의 한 관계자는 11일 “군사분계선(MDL)에서 가까운 북한군 전방부대가 영농작업에 들어갔다”면서 “1호 전투근무태세가 발령됐던 지난달보다 근무태세가 느슨해진 것 같다”고 밝힘.

● 北 ‘걸그룹’ 모란봉악단, 군부대서 첫 위문공연(4/12, 조선중앙통신)

- ‘북한판 걸그룹’인 모란봉악단이 지난 11일 인민군 제630대 연합부대를 방문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추대 1주년을 경축하는 공연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제630대 연합부대 장병을 격려하려고 모란봉악단을 보냈으며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을 통해 부대에 선물도 전달했다고 전함.

● 북·중 접경 단둥 평은...“태양절 축하 방북 준비”4/11, 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 발사 태세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11일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단둥 해관(세관)에는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북한으로 반입할 물품을 가득 실은 대형 화물차 50여대가 몰려들어 수속을 밟은 뒤 압록강철교를 건너 신의주로 향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해킹 피해’ 北 일부 사이트 닷새째 복구 안돼(4/8, 연합뉴스)**
 - 최근 국제해커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에 해킹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일부 웹사이트와 트위터 계정이 아직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연합뉴스의 확인 결과 북한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이 운영하는 ‘구국전선’ 홈페이지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얼굴에 저팔계를 합성한 사진이 지난 4일 처음 올라온 이후 이날 오전까지 닷새째 첫 화면에 게시됨.
- **중국인 단둥발 북한 단체관광 잠정 중단(종합)(4/10, 연합뉴스)**
 -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의 대표적인 북한 관광 루트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을 통한 북한 단체관광이 10일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중국인 대상 북한 관광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단둥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어제 저녁에 ‘한반도 정세와 관광객 안전을 고려해 북한 관광을 일시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단둥~신의주 1일 버스 관광은 물론 단둥~평양·개성·묘향산 4일 열차·버스 관광 등 단둥에서 출발하는 모든 북한 단체관광이 중단됐다”고 밝힘.
- **北 평양에는 ‘김일성 생일’ 외국손님 속속 도착(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일 전쟁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예년처럼 외국의 친북 인사들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속속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통신은 지난 10일 “김일성 동지의 생일에 즈음해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 위원장 등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 대표단, 아나톨리 돌가체흐 위원장 등 러시아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협회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또한 “(김일성 생일 경축)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주정걸 등 중국 단둥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대표단, 해문강 중국 단둥 한통국제화운대 리유한공사 총경리, 류진생 중국 선양 조선경제무역투자자문유한공사 이사장과 일행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덧붙임.

● **북한 “일본에는 원자력시설 있다” 위협(4/11, 노동신문)**

- 10일 도쿄에서 확인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인터넷판은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일본에 가져다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은 새로운 조선 전쟁(한국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장거리 타격을 증시하는 현대전에서 일본의 전 영토는 우리의 보복 타격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함.
- 신문은 이어 “일본 땅에는 수많은 미군 핵기지들과 원자력 관련 시설들, 군사시설들이 곳곳에 있다”며 “일본은 20세기 40년대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시가) 입은 핵 참화와는 대비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입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위협함.

● **중국군 수천명, 최근 북한 접경지역에 출동(4/12, 교도통신)**

- 중국군이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 병력 수천명을 출동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12일 중국 단둥(丹東)발로 보도함.
-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동북지방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선양(瀋陽) 군구 소속 병력 수천명이 지난달 접경도시인 단둥으로 이동한 뒤 이달 들어서까지 대기했다고 전함.

● **北, 미사일요격 명령 日에 “전쟁 불꽃 먼저 튀길 것”(4/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2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파괴조치명령’을 발동한 것 등을 거론하며 “일본이 순간이라도 움쩍한다면 전쟁의 불꽃은 일본에 먼저 튀길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함.
- 통신은 이날 ‘<황금소나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현 정권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무력증강과 재침의 기회를 마련해 지난 조선전쟁(한국전쟁) 시기와 같은 어부지리를 얻어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나. 6자회담(북핵)

- 케리 “北과 대화 원해…선택은 김정은에 달려”(종합)(4/1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12일 핵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국을 처음 방문한 케리 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뒤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으며,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가 대화의 조건이라면서 “국제적인 의무, 국제적인 표준, 자신들이 수용한 약속을 받아들여야 하며,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日, 北 ‘핵 불꽃’ 위협에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할 것”(4/12, 연합뉴스)
 - 일본은 12일 북한이 “도쿄가 핵의 불꽃에 휩싸일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기자에게 “북한의 발언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함.

- 北 김영남 “핵무력 늘려 반미대결전 강도높게 벌이자”(4/13, 조선중앙TV)
 -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1회 생일을 하루 앞둔 14일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미 전면대결전을 강도 높게 벌일 것”을 다짐했다고 조선중앙TV가 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김정은 동지의 선군영도를 받들어 군대를 더욱 강화하고 통일조선의 국보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하며 전시상황에 들어간 정세에 대처해 반미 전면대결전을 강도높이 벌여야 한다”고 밝힘.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매체 ‘전쟁위협’ 대신 경제기사 늘어…태도 변화(?)**(4/8, 연합뉴스)
 - 북한이 ‘폭력적인 언사’로 대남·대미 위협 공세를 펼친 데 이어 실제 군사 도발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4일 전함.
 - 5MW(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음.

- **北 “어나니머스 해킹범죄는 南 당국의 조작” 주장**(4/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8일 국제해커조직 ‘어나니머스’에 최근 자체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사건이 “남조선정보원을 비롯한 괴뢰패당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우리민족끼리가 8일 전함.
 - 이 웹사이트는 이날 편집국 명의로 올린 ‘범죄적인 해킹책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이번 ‘어나니머스’의 해킹행위는 인터넷 활동에 대한 엄중한 범죄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 특히 이번 해킹사건을 계기로 ‘중북논란’이 제기된 점, 어나니머스가 6·25를 계기로 북한 인터넷을 재공격하기로 한 점, 해킹을 했다고 주장하는 어나니머스 회원이 한국어·영어를 사용하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런) 모든 사실은 해킹 책동이 괴뢰패당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 **北, 남한 시민단체에 “반미항전 하자” 팩스 보내**(4/8,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남북관계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한 특별성명을 발표한 직후 남한 시민단체들에 “반미항전에 함께 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9일 통일부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귀 단체가) 민족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 항전에 적극 떨쳐나서리라는 확고한 기대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팩스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보냄.

● **北, 무수단 미사일 발사준비 끝낸 상태(종합)(4/9, 연합뉴스)**

- 북한이 강원도 지역 동해안으로 이송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9일 “동해안으로 옮겨진 북한 미사일 동향을 추적한 결과 발사 준비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기술적으로는 내일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함.

● **해킹 북한IP의 등록주소는 ‘평양시 류경동’(4/11, 연합뉴스)**

- 북한이 3·20 사이버테러에 사용한 인터넷프로토콜(IP)주소가 등록된 지리적 주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 보통강구역 류경동’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후이즈’ IP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북한이 3·20 사이버테러에 사용한 IP주소인 ‘175.45.178.xx’의 등록주소는 보통강구역 류경동(Ryugyong-dong Potong-gang District)임.

● **北 “南 보수언론, 병진노선에 악담”(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남한의 일부 언론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에 ‘악담’을 하고 있다고 전함.
 - 통신은 이날 ‘세치 혀바닥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을 거론하며 “(보수언론들이) ‘말도발 수준을 뛰어넘는 핵무장 시도’라느니, ‘고도의 벼랑끝 전술’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병진노선의 위력을 약화시키려고 별의별 잡소리를 쫓쳐대고 있다”고 말함.

- **北, ‘3·20 해킹’ 부인…“고의적 도발” 주장(종합)(4/12, 평양방송)**
 - 북한은 12일 ‘3·20 해킹’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려는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 평양방송을 통해 밝힘.
 -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3·20 해킹공격사건의 복소행설은 천안호 침몰사건의 재판으로 미국의 핵전쟁 소동에 편승해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한 계선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함.

- **北, 남한군 ‘초토화 전략’ 비난(4/12,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2일 서기국 보도에서 “최근 남조선 괴뢰 군부 호전광들이 북침도발 기도를 드러낸 ‘북군 초토화 전략’이라는 것을 들고나왔다”며 이 전략이 ‘작전계획 5015’에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초토화 전략’이 “(전쟁 개시) 사전에 (남한이 북한으로) 미사일을 다량 발사해 우리 무력을 초토화한다는 것”이라며 “괴뢰 군부 깡패들은 당면해 분계선 남쪽지역에서 북의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외국에서 구입하는 데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전함.

- **北 “빠라 날아오면 끔찍한 사태 빚어질 것” 위협(4/13,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남한 보수단체가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계획에 대해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힘.
 - 논평은 “우익보수 깡패들이 감히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적대적인 빠라 살포 놀음을 벌려놓으려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혈뜯는 용납 못 할 도발”이라며 이같이 전함.

- **北 “한반도 긴장은 ‘핵전쟁 책동’ 美 책임”(4/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논평에서 미국이 ‘존 스테니스’ 등 핵 추진 항공모함 2척에 이어 핵잠수함 ‘샤이엔’을 한반도와 가까운 수역에 배치해 전쟁 분위기를 극도로 고조했다며 “미국의 발악적인 핵전쟁 도발책동

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최악의 국면에 처하였다”고 밝힘.
 - 특히 “미국이 수십 년 전부터 북침 핵전쟁 연습에 매달려오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모든 종류의 핵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대조선 압살책동
 에 미쳐 날뛰 적은 일찌기 없다”고 전함.

● **北 조평통 “南 대화제의를 교활한 술책” 비난(종합4보)(4/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4일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개성공업지구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의 범죄적 죄행
 을 꼬리자르기 하고 내외여론을 오도하며 대결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하고
 “북침핵전쟁 연습과 동족대결 모략책동에 매달려온 자들이 사죄나 책임
 에 대한 말 한마디 없이 대화를 운운한 것은 너무도 철면피한 행위”라며
 “대화 제의라는 것을 들여다보아도 아무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
 하다”고 주장함.

나. 경제 · 사회 · 문화

● **北 김양건 대남비서, 개성공단 방문…“대책 협의”(종합2보)(4/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가 8일 남측 인원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개성
 공단을 전격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8일 전함.
 - 통신은 이날 “최근 미국과 남조선 보수 당국의 반공화국 적대행위와 북침
 전쟁행위로 개성공업지구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과 관련해 김양건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8일 현지를 료해(점검)하였다”며 김 비서가 긴장
 되고 동원된 태세를 철저히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함.

● **‘폐쇄위기’ 단동 축구화 공장 지난달 정상화(4/9, 연합뉴스)**

- 인천시가 추진하는 유일한 남북교류사업인 중국 단동시 축구화 공장이
 최근 정상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단둥 축구화 공장은 지난해 말 동절기 휴가를 떠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자 발급이 늦어져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됨.
- **“개성공단 北근로자 출근안해”…조업중단(종합2보)(4/9,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9일 북측 근로자들이 예상대로 개성공단 업체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함.
 -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 생산직 근로자들이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다만 업체별로 1~2명씩 경비직 근로자만 약 200명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협력부에서 일하는 북한인 8명도 오늘 출근했다”고 전함.
- **北, 南 민간단체 지원 의약품 받아(4/11,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의 전시상황 선언 등으로 대남 위협을 이어가면서도 남한 민간단체가 지원한 의약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정부 관계자는 11일 “민간단체 유진벨재단이 최근 배편으로 보낸 결핵약을 북한이 접수했다”고 밝힘.
 - 유진벨재단은 지난달 22일 평택항을 출발하는 배편으로 결핵약을 북한에 보냈고 이 약품은 중국 다롄항을 거쳐 지난 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함.
- **北 매체 “개성공단 잠정중단은 우리 존엄 모독 때문”(4/11,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개성공단이 잠정중단된 책임은 자신들의 ‘존엄’을 모독한 남한에 있다고 11일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개성공단 사태, 책임은 전적으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개성공업지구사업이 잠정중지된 현 사태는 바로 남조선괴뢰패당이 가중되는 도발로 북남관계를 전시상태로까지 몰아넣고는 갖은 고약한 입질을 다 해대며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밝힘.
- **北 “개성공단 사태, 청와대가 바른 선택해야”(종합)(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1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정권까지 우리의 대결을 추구한다면 개성공업지구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북한에서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남조선 괴뢰당국과 전쟁광신자들은 저들이 저지른 반민족적 죄행에 대해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도리어 ‘실망’이니, ‘유감’이니 하면서 우리의 증대조치를 시비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北 “자주권 침해당하면서까지 개성공단 용인못해”(4/13,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논평에서 “생명과도 같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당하면서까지 공업지구의 존재를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주장함.
- 논평은 “괴뢰패당들 속에서는 (개성공단)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황당무계한 꾀변들과 악담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가 개성공업지구 문제와 관련하여 ‘형제’니, ‘가보’니 뭐니 하며 떠들어대고 괴뢰통일부를 비롯한 역적패당이 ‘책임’이니, ‘용납할 수 없다’느니 하는 잡소리를 해대고 있다”고 비난함.

■ 기타 (대남)

- 北 김양건(黨 비서), 4.8 ‘개성공단 北 근로자들 전원 철수·개성공단사업 잠정중단 및 존폐여부 검토’ 선언 ‘담화’ “위임에 따라” 발표(4.8, 중통·중방)
 - 개성공업지구가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마당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비극이며 그러한 개성공업지구는 없는 것보다 못함.
 -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렸음.
 - 김양건, 4.8 개성공단 방문과 현지 ‘대책협의’에서 “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게 되는데 대한 언급”과 “어떤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 데 대한 과업” 지시(4.8, 중통·중방)
- 北 「조평통」 대변인,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의 ‘4.11 對北 대화제의’에 대해 “아무 내용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고 4.14 중통기자 대담(4.14, 중통·중방)
 - 대화제의는 “대결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술책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
 -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대화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함.
 - 대통령(北,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함. 등)과 與黨·언론들의 ‘北, 개성공단 조업 중단’ 지적에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에게 있다’고 왜곡 책임 전가(4.14, 중통·노동신문/개성공업지구 폐쇄위기는 누가 몰아왔는가)

4.15-4.21

4 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軍간부 대동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5일 0시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맞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인민군의 고위 간부들을 대동하고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통신은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 가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고 전함.

- **北 김정은, 군사학교 체육경기 이례적 관람(4/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맞아 군사학교 간 교직원 체육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체육경기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 당 비서,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통신이 전함.

- **노동신문 사진에 김정각 前인민무력부장 등장 눈길(4/16, 연합뉴스; 노동신문)**
 - 지난해 10월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장관)에서 물러난 김정각 차수가 북한 매체에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과 김일성정치대학 간 체육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하면서 실은 사진에 김정각이 차수 계급장을 달고 김 제1위원장 바로 뒤에서 일어선 채 손뺌치는 모습이 포착됨.

● 北 해군사령관, 김명식 前동해사령관으로 확인(4/16, 연합뉴스)

- 북한의 김명식 전 동해함대사령관이 해군사령관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함.
- 북한 매체가 전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동행한 북한 인사들을 소개하면서 리병철(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다음에 김명식을 호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확인함.

● 北 노동신문, ‘金부자’ 초상화 지켜낸 사연 선전(4/17, 노동신문)

- 조업 중 풍랑을 만나 목숨을 잃으면서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지켜낸 선원들을 칭송하는 ‘미담기사’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뒤늦게 실음.
-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안남도 증산군 앞바다에서 파도를 만나 침몰한 ‘ㄷ-자-91885’호 선원 5명은 죽음의 순간까지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초상화를 습기가 새어들지 않게 보호하는 모범을 보임.

■ 김정은동향

- 4/16, 김정은 黨 제1비서, 4.15 평양시민들과 함께 ‘태양절경축’ 은하수음악회 관람(4.16,중통·중방)
 - 최룡해, 장성택, 김경희, 최태복, 양형섭, 강석주, 곽범기 등 동행 관람
- 4/16, 김정은 黨 제1비서, 4.15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4.16,중통·중방)
 -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격식, 김경희, 김경욱, 황병서, 오금철(軍총참모부 부총참모장/경기 준비 보고) 등 함께 관람
 -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육아원·애육원·초·중등학교원·양로원·양생원의 원아들과 노인들에게 운동복과 학용품·식료품들 전달(4.15,평방)

■ 기타 (대내 정치)

- 제15차 김일성화축전 폐막식, 4.19 김기남·양형섭 등 참가자 김일성화김정일화 전시관에서 진행 (4.19,중통·중방)

나. 경제

● 北, 농업부문 기층조직 ‘분조’ 관리 강화 강조(4/18, 노동신문)

- 협동농장의 기층조직인 분조(分組)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분조관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재차 강조함.
- 신문은 이날 ‘분조관리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농업부문 일꾼들은 분조관리제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이 사업에 품을 들여야 한다”며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농업근로자들 속에 깊이 인식시켜 모두가 그 강화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분조장 대열을 잘 꾸리고 지대적 특성에 맞게 분조수와 노력자수(인원), 토지면적을 바로 규정해주어야 한다”며 “그에 따르는 알곡생산 계획을 알려주고 그 수행을 위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기계, 영농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며 분조 호상(상호) 간 알곡증산경쟁의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김일성 시대 ‘천리마운동’ 발원지 부각(4/19, 노동신문)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당 신문은 29일 1면에 게재한 ‘강선이 지펴올린 증산투쟁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 번지게 하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기업소의 강철생산 성과를 소개하며 “전체 인민이 최대의 마력을 내어 증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 사설은 “강선에서 타오른 불길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 진군의 힘있는 박차”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핵무장해제와 제도전복을 꾀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전쟁책동과 ‘제재’ 소동을 자립의 무쇠마치로 짓뭇개버린 역사적 장거”라고 주장함.

다. 군사

● 北, ‘태양절’ 미사일 발사 안해…열병식도 없어(4/15, 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인 15일 관측이 무성했던 대외 무력 시위 없이 내부 생일 행사에 치중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를 전후로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등도 현재까지 발사하지 않고 있다고 군 당국은 밝힘.

● **北, 62년 ‘병진노선’ 강조…국정목표도 김일성 모방(4/21,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병진의 승전포성 울리며 앞으로’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우리 혁명에서 병진이란 말은 깊은 역사를 안고 있다”라며 “1962년 카리브해 위기가 닥치고 미제와 주구들이 북진을 부르짖던 그때 우리 당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방침을 제시했다”고 강조함.
- 정론은 이어 “이렇게(병진) 하자면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국방에 돌려야 할 것이지만 조국보위에 완벽을 기하려면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더 큰 힘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간곡한 음성이 지금도 귓전을 울린다”고 덧붙임.

라. 사회·문화

● **北 태권도팀, 내달 호주 국제무술대회 참가(4/17,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다음 달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무술대회에 태권도팀을 보낼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전함.
-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호주 가라데연합의 대니 코르다노브스키 사무총장은 17일 미국에 호주 멜버른에서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5회 국제무술대회에 북한의 태권도 선수 12~15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함.

● **커피 ‘제3의 물결’ 평양 상륙…北도 핸드드립 커피(4/18, 연합뉴스)**

- 북한 평양에 핸드드립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커피전문점이 등장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조선익스체인지’(Choson Exchange)는 18일 단체 홈페이지에 평양호텔 전망대 레스토랑 옆에 문을 연 커피전문점을 6장의 사진과 함께 소개함.

- **북한 농민들, 가구 단위 도급제 시행 기대(4/19, 환구시보)**
 - 북한 농민들이 당국의 농업 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환구시보가 접경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함.
 - 환구시보는 최근 북한의 태양절 연휴 기간 북·중간 최대 교역 루트인 라오닝성 단둥(丹東)과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건설 현장 등을 답사한 르포 기사에서 이같이 전함.

- **北, 국제대회 참가열...경기성과 대대적 홍보(4/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2013년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박영미 선수가 여자 자유형 48kg급, 황룡학 선수는 남자 자유형 60kg급 경기에서 각각 1위를 쟁취했다”고 소개함.
 - 아시아 1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8일부터 22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 북한은 4명의 남자 선수와 3명의 여자 선수를 내보냈으며 이 대회에서 양경일(남)은 은메달, 서심향·한금옥(여)과 윤원철(남)은 각각 동메달을 받음.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이란 국제전시회에 원유공업성 대표단 파견(4/16, 조선중앙통신)**
 - 배학 원유공업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원유공업성 국제전시회 대표단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리는 제18차 원유·가스·정제 및 원유화학 국제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16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과 이란은 1980~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의 군사 협력을 비롯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여러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종전 이후에도 양국은 정치·경제·인도주의 분야에서 관계를 유지해 왔음.

● **北, 中 신종 AI 확산에 ‘촉각’(4/18,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우려를 자아내는 신형 조류독감 피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H7N9형 조류독감이 퍼져 커다란 국제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중국의 AI 확산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함.
- 신문은 “현재 중국의 감소성과 안휘성, 상해시 등에서 근 50명의 H7N9형 조류독감 바이러스(바이러스) 감염환자가 확인됐으며 그중 11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한다”며 “유전자 등을 분석한 결과 H7N9형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병시 증태에 빠지기 쉬운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전함.

● **중국~금강산 유람선관광 잠정 중단(4/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한반도 긴장 국면의 여파로 중국인의 북한 관광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과 금강산을 오가는 유람선 관광도 잠정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9일 전함.
- 베이징에 사무실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Young Pioneer Tours)는 1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금강산 유람선 관광 상품은 다음에 통보할 때까지 잠정중단된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이 전함.

● **북·중, 양강도 경제개발구 추진 협의(4/19, 길림신문)**

- 북한이 중국과 접경한 양강도에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최근 중국 측과 협의했다고 길림신문이 19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양강도 대외사업국 김경호 국장 일행은 며칠 전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양강도 김정숙군과 마주한 지린(吉林)성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을 방문, 추라이푸 현(縣) 공산당위원회 서기와 회담을 진행함.
-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신장, 연봉, 혜탄, 강안 등 4개 구역으로 나뉜 구역마다 합자·합작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유치하는 양강도 경제개발구 추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중국의 대화제의 수용...우다웨이 방북 가능성(4/20, 아사히신문)**

- 북한이 중국과의 대화를 수용할 뜻을 피력함에 따라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또는 그 상급 인사가 향후 북한을 방문할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함.

- 신문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 미사일 발사태세를 보이는 북한이 중국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이달 중순 표명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미국·일본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전함.

● 北 “美와 군축회담…비핵화 회담은 없어”(4/20, 노동신문)

- 최근 미국과 대화 조건으로 ‘핵전쟁 연습’ 중단 등을 요구한 북한이 20일 앞으로 군축회담은 있어도 비핵화 회담에는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밝힘.
- 신문은 이날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정책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글에서 “최근 미국은 우리와의 ‘대화’를 입에 올리면서도 그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와 미국 사이에 군축을 위한 회담은 있어도 비핵화와 관련된 회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北 ‘보스턴 테러 연계설’ 비난…“테러반대 입장”(4/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미국의 일부 언론이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를 자신들과 연계시키는 ‘날조기사’를 썼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함.
- 통신은 이날 ‘무엇을 노린 모략보도인가’는 논평에서 “최근 미국 보수세력의 견해를 대변하는 ‘월드네트데일리’(인터넷)가 보스턴 마라톤 경기시 발생한 폭탄폭발 사건을 우리와 연결시킨 허황한 날조 기사를 보도했다”며 “언론의 초보적인 체모도 갖추지 못한 반공화국 나발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함.

나. 6자회담(북핵)

● ‘대화제의’ 비난 北, 미국에 “먼저 약속 지켜라”(4/17, 노동신문)

- 북한은 미국의 ‘대화제의’를 “기만의 극치”라고 비난한 데 이어 1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오히려 북한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힘.

- 신문은 이날 ‘미국은 제 할 바나 바로해야 한다’는 개인 필명의 글에서 “우리의 핵동력 공업 발전과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는 그 어떤 국제적 의무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이 해마다 ‘키 리졸브’ ‘독수리’와 같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였고,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핵 선제타격 대상에 올려 공동성명 1항을 위반했다고 비난함.

● **北, 리비아 사태 교훈 강조…“핵무장만이 살 길”(4/18,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리비아 사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회유 기만에 넘어가 자체의 무력강화 노력을 포기한 나라들은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리비아를 꼽음.
- 신문은 리비아가 미국의 위협에 맞서 비밀리에 독자적으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했으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태도를 바꿨다며 이는 “미국과 엇서다가는 자기 나라도 이라크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기타 (6자회담(북핵))**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4.16)】 ‘미국이 對北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대화는 우리(北)가 핵억제력을 충분히 갖춘 단계에 가서야 가능하다’며 대화 움직임 일축 (4.16, 평방·중통)
- 미국이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고 침략적인 무장 장비들을 철수하지 않는 한 우리(北)는 군사적 대응도수를 계속 높여 나갈 것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 대화 원하면 모든 적대행위 사죄해야”(4/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6일 국내 일부 보수단체의 반복 퍼포먼스를 비난하면서 남한 정부가 모든 반복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전함.
 - 통신은 북한 최고사령부가 이날 남한 정부에 보내는 ‘최후통첩장’을 발표하고 “괴뢰 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지금까지 감행한 모든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 겨레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통첩장은 “(우리는) 비록 참여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모두가 떨쳐나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민족 최대의 경사로 경축하고 있다”라며 “남조선 괴뢰들만이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서 반공 깡패무리를 내몰아 반공화국 집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우리 최고 존엄의 상징인 초상화를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함.

- 北노동신문 “최고존엄 모독에 단호하고 실제적 조치”(4/17, 노동신문)
 - ‘태양절’(김일성 생일)에 있는 남측 보수단체의 반복 퍼포먼스로 인해 한 반도에 전쟁상태가 조성됐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전주민에게 만반의 대응 태세를 촉구함.
 - 신문은 이날 1면 머리에 게재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원수들에게 복수의 철추를 내리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훼손시킨 남조선 괴뢰들의 만행은 이 땅에 끝끝내 핵전쟁의 참화를 가져오는 가장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이로 인해 “조선반도의 정세는 더는 되돌려 세울 수 없는 전쟁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北 “적대행위 계속되면 남북대화 절대 없어”(종합)(4/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북침전쟁연습소동에 계속 매달리며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광분하는 한 그 어떤 북남(남북)대화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패당이 미국과 한쪽이 되어 우리의 우주개발과 핵무력 강화를 함부로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 ‘제재’, 압살 책동에 가담하고 조선반도에 최신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며 군사연습을 벌리는 적대행위와 북침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북남대화나 북남관계 개선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 밝힘.
 - 담화는 “원래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대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충고한대로 뒤늦게라도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체 중지하고 북침전쟁연습과 반공화국소동을 걷어치우며 앞으로도 그러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온 민족 앞에 확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北 “韓美, 대화하려면 도발 중지·사죄해야”(종합3보)(4/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8일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동원해 남한과 미국 정부에 대화를 바란다면 군사훈련 등의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전함.
 -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사죄하여야 한다”며 “1차적으로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이 보도함.
- **北, ‘최후통첩’ 남측 반응 맹비난(4/19, 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에 대한 남한 당국자들의 반응을 ‘악담’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반복 퍼포먼스를 비난한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에 대해 통일부 등 남측 당국이 “특대형범죄행위를 합리화해보려고 온갖 악담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조평통은 또 “천추에 용서못할 대죄악을 비호조장하면서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격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역적패당이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사죄 한마디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고 덧붙임.

● **北매체, 조평통 담화 최초문구 수정...본심 들켰나(4/19, 연합뉴스)**

- 북한 매체가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소개하면서 미국과의 핵전쟁 관련 문구를 최초 내용과는 다르게 전달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조평통은 18일 오전 10시 50분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적대행위와 북침전쟁책동이 계속되는 한 북남(남북)대화나 북남관계개선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은 최신 핵전략 무기들과 장비들을 총동원해 우리를 위협했다. 마땅히 우리는 강위력한 핵타격 수단으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했다”며 “이번에 우리는 미국과 사실상 한차례의 핵전쟁을 치른 것이나 같다”고 말함.

● **北 매체 “4·19정신으로 통일 염원 앞당기자”(4/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9일 4·19혁명 53주년을 맞아 “남조선 인민들이 4·19의 정신으로 투쟁하면 통일된 강토에서 살려는 민족의 념원은 앞당겨 실현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장함.
- 통신은 이날 ‘살아있는 4월 인민봉기자들의 고귀한 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온 겨레가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한목숨 바친 봉기자들의 고귀한 념을 이어 미국과 반역세력의 책동을 짓부셔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北조평통, 어나니머스 해킹 비난(4/20,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0일 국제해커조직 ‘어나니머스’가 최근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한 사건의 배후에 남한 정부가 있다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얼마 전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우리의 여러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해커범죄집단에 의해 또다시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화국의 합법적인 인터넷 활동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北 “한반도 긴장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4/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반도(한반도) 긴장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조선 민족”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이날 ‘조선반도 사태로 누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가’라는 논평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조선반도 정세격화로 우리가 그 무슨 ‘내부결속’과 같은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힘.
- 논평은 “인민생활향상과 강성국가건설을 총적목표로 내건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책동으로 걸음걸음 장애를 받고 있으며 현실적인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함.

● 北, 김장수 안보실장 발언 비난…“호전적 망발”(4/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0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호전적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통신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겠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능력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공공연한 망발은 현 조선반도(한반도) 사태를 더욱 격화시켜 전면전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리려는 도발적 악담”이라고 주장함.

● 北, 김장수 안보실장 대북 발언 이틀째 비난(4/21,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6면에 실린 논평에서 김 실장의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을 거론하며 “(김장수) 역도의 이번 망발은 우리를 자극하면서 북남 사이의 현 긴장 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켜 북침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리기 위한 괴뢰들의 무분별한 흥계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라고 비난함.

나. 경제 · 사회 · 문화

- **北,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불허...정부 “매우 유감”(종합2보)(4/18, 연합뉴스)**
 -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추진한 17일 개성공단 방북이 북한의 방북 불허로 무산됐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장기화 국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함.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 **北, 중소기업 대표단 22일 개성공단 방문도 불허(종합)(4/19, 연합뉴스)**
 - 북한이 범 중소기업계 대표단이 추진해 온 ‘개성공단 22일 방문’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늘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한 측에 방문 신청을 통지했으나 북한 측이 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고 말했으며 북한은 거부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함.

기타 (대남)

- 【北 軍최고사령부 최후통첩장(4.16)】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정은사진이 붙은 모형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것 관련 ‘예고없는 보복행동 개시,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정부당국의 사죄’요구(4.16,중통·중방·평방) ※ 南 보수단체 회원들, 4.15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퍼포먼스 진행
- 최고존엄을 훼손하는 만행이 괴뢰당국의 비호 밑에 벌어지고 있는 한 우리의 예고없는 보복행동이 개시될 것이며 대상에는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과 부추기고 묵인한 놈들 및 해당 당국 기관, 부서들이 포함될 것임.
- 천만군민이 최고존엄을 어떻게 받들고 지키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北) 혁명무력의 군사적 시위행동이 즉시 개시될 것임.
- 당국자들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크고 작은 모든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면중지하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온 겨레 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임.

4.22-4.28

4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김정일 금고지기’ 전일춘, 8개월만에 北매체 등장(4/23,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노동당의 비자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일춘 노동당 39호실장이 오랜만에 북한 매체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뉴스가 조선중앙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일 오후 8시 뉴스 시간에 소개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증조모인 강반석의 121회 생일 현화행사에서 전일춘의 모습이 확인됨.
 - 전일춘은 이 행사에서 강반석의 묘에 바치는 화환을 들고 입장했으며 최태복 노동당 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당과 내각의 주요 간부 바로 뒷줄에 서서 참배함.
- 北 박봉주 첫 현지시찰...황남도 농사실태 점검(4/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황해남도 해주시에 있는 비료공장과 채소온실, 청단군 청정협동농장, 강령군 부민협동농장의 농사실태를 현지에서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박 총리는 현지에서 농업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농장이 선진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고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데 대해 언급함.
- 北, 인민군 창건 81주년 ‘차분히’ 경축(4/24,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백전백승의 최정예강군’이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인민군은 사상의 강군, 정신력의 강군”이라며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최정예 강군”이라고 군대를 치켜세움.
 - 정론은 최근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된 것과 관련해 “소형화·경량화·다중화된 핵무기까지 가진 강군의 기상 앞에 적이 혼비백산하고 있다”며 “반미 전면대결전은 끝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미 전승의 광장을 보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석탄공업상에 리영용 승진 임명 확인(4/25, 연합뉴스; 민주조선)**
 - 북한 내각의 석탄공업상에 리영용(58) 부상(차관급)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연합뉴스가 25일 확인한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의 지난 21일 자는 전날 열린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경제발전계획의 올해 1·4분기 총화(평가)와 2·4분기 대책과 관련해 “토론에는 전길수 철도상, 리영용 석탄공업상, 최철룡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가 이달 6일까지 리영용을 석탄공업성 부상으로 소개한 점을 미뤄볼 때 그가 최근 석탄공업상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임.

- **北, 軍창건일에 약식 열병행사·3대 김씨 띄우기(종합2보)(4/25,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은 25일 인민군 창건 81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약식 열병행사’를 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김씨의 군 업적을 부각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북한군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에서 분열행진을 하며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
 - 조선중앙TV는 이날 저녁 1시간가량 이 행사를 녹화중계했으며,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김명식 해군사령관,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락겸 전략로켓 사령관 등 군 지도부가 남한과 미국을 겨냥해 “남해를 놈들의 최후멸망의 무덤으로 만들겠다” “미제는 진짜 핵전쟁 맛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될것” 이라고 밝힘.

- **北 김정은, 軍 창건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5일 인민군 창건 81주년을 맞아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금수산태양궁전을 방문해 김일성·김정일의 입상에 인사한 뒤 조부와 부친의 시신이 있는 ‘영생홀’을 차례로 찾아 참배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

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박도춘 노동당 비서, 현철해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영춘·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주규창 당 기계공업부장,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 리병삼 인민보안부 정치국장 등이 수행함.

- 北 김정은 부부, 주민종합편의시설 ‘해당화관’ 방문(4/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개업을 앞둔 주민편의시설 ‘해당화관’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1~2층의 상점, 식사실을 찾아 시공정형과 봉사(서비스) 계획을 점검한 뒤 철판구이집을 돌아보고 요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목욕탕, 물놀이장을 비롯한 다른 시설을 방문하고 “오늘 해당화관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만점”이라며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함.
 - 이날 김 제1위원장의 해당화관 방문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현영철 군 총참모장, 김격식 인민무력부장, 김경희·김기남·최태복·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 노동당 비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오일정·백계룡 당 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 제1부부장 등이 수행함.

김정은동향

- 4/26, 김정은 黨 제1비서, 4.25 ‘인민군창건 81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26, 중통·중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격식, 김경희, 박도춘, 김영춘, 리용무, 현철해, 김원홍, 오극렬, 최부일, 주규창, 김창섭, 리병삼 등 참가
- 4/28,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개업을 앞둔 ‘해당화관’ 시찰(4.28,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현영철, 김격식,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오일정, 백계룡, 한광상 등 동행

기타 (대내 정치)

- 내각지원회의 확대회의, 박봉주 총리 참가下 ‘김정은이 당중앙위 3월지원회의에서 제시한 병진노선·전국경공업대회의 과업 관철 및 1·4분기 인민경제발전계획 평가와 2·4분기 대책’ 등 논의(4.22, 중통)
- △경제건설과 핵억제력을 다지기 위한 과업과 방도 △대외경제사업 강화하여 미국과 反北세력의 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수고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과업과 방도 제시
- 박봉주(내각 총리), 黃南道內(해주시 비료공장·남새온실 및 청단군 청정협동농장과 강령군 부민협동농장) 농사실태 현지 요해(4.23, 중통)

- 이에 앞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현대화사업도 요해
- 【인민군 창건(4.25) 81주년 관련 동정】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사회), 현영철(보고), 김격식,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리영무, 강석주, 오극렬, 현철해, 김원홍, 주규창, 김창섭, 최부일, 리병삼 등 참가
 - 국방공업부문에서 당의 군사전략사상과 병진노선을 높이 받들고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비롯한 보다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며,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다고 강조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김격식,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현철해, 김원홍, 김양건, 곽범기, 문경덕, 주규창, 김창섭, 로두철, 최부일, 리병삼, 조연준 등 참가
- ‘인민군창건 81돌’ 즈음 경축연회, 4.25 김정은 등 참가下 목란관에서 진행(4.26, 중통·중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축배사) 등 국가 책임일군들과 駐北 여러나라 외교대표부부·무관부부들 참석

나. 경제

- **화학비료 부족한 北, 농사철 유기질비료 생산 독려(4/23,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3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올 농사철을 맞아 유기질비료 생산을 독려함.
 - 방송은 “(양강도) 대흥단군 미생물복합비료공장 종업원들이 생산설비를 자동흐름식으로 기술개진(개조)해 아미노산 미량원소복합비료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전함.
- **유엔 “北 봄철 농작물 작황 작년보다 나을 것”(4/23,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올 봄 농작물 작황이 작년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함.
 - FAO는 북한의 올해 기상 여건이 좋아 보리, 밀, 감자 등 오는 6월부터 수확되는 농작물 작황이 작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봄.
- **‘마그네사이트 寶庫’ 단천, 북한 새 경제기지 될까(4/25, 연합뉴스)**
 - 북한의 대표적인 비철금속 생산지역인 함경남도 단천이 김정은 정권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함.
 - 단천은 세계적 규모의 마그네사이트와 아연 등의 광물이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며, 이 지역의 지하자원 수출을 목표로 2009년 7월 단천항 건설을 시작해 작년 5월 준공식을 함.

● 北 만포시에 중소형 발전소 준공(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자강도에 만포연하발전소 완공돼 26일 준공식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만포연하발전소는 장자강에 세워진 중소형발전소로 자강도 만포시의 공장, 기업소, 주택 등에 전기를 공급함.
- 박봉주 내각 총리와 박도춘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했고 박 총리는 발전소 건설의 기여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 감사문을 전달함.

다. 군사

● 北, 서해서 공·지 합동화력훈련 준비 징후(4/28, 연합뉴스)

- 북한이 동해안으로 전개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에서 대규모 공·지 합동화력훈련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8일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8일 “북한이 서해안 남포 인근지역에서 항공기와 지상의 포병전력을 동원하는 합동화력훈련을 준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훈련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北 대동강에 ‘유람선 식당’ 개업(4/2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군 창건 81주년인 25일 평양 대동강에 식당으로 전용되는 대동강호의 개업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박봉주 내각 총리는 개업사에서 “식당배 대동강호 개업식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안겨주는 또 하나의 경사”라며 “대동강호는 김정은 원수님의 애국헌신이 안아온 인민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함.

- **北 휴대전화 가입자 200만명 육박(4/27, 노스코리아테크)**
 - 북한의 3G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가 27일 전함.
 - 평양에 있는 ‘고려링크’의 에스 헤이칼 대표는 이번 주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고,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오라스콤 텔레콤 본사에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노스코리아테크는 설명함.

- **北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재판 회부”(종합)(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가 북한 최고재판소의 재판에 회부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통신은 “지나해 11월3일 나선시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체포된 미국국민 배준호에 대한 예심이 전부 끝났다”며 “배준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최고재판소에 기소돼 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함.
 - 또한 “예심과정에서 배준호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책동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했으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에 의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함.

- **北 직업·청년동맹 ‘병진노선’ 관철 전원회의(4/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28일 평양에서 각각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말 노동당 중앙위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이 토의되었다고 통신은 밝힘.

- **北 최신 편의시설에 한국 화장품 브랜드 간판 눈길(4/28,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가 2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개업을 앞둔 대동강변 주민종합편의시설 ‘해당화관’의 화장품 매장을 둘러보는 모습이라며 소개한 사진에 화장품 브랜드 간판 ‘라네즈’, ‘로레알’, ‘랑콤’ 등이 포착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대사, 몽골에 식량지원 검토 요청(4/22, 인포몽골리아)**
 - 몽골 주재 북한 대사가 몽골 대통령에게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해질 수 있다면 식량 지원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몽골 매체인 인포몽골리아가 22일 전함.
 - 홍규 신임 몽골 주재 대사는 지난 16일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한 자리에서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며 몽골이 대북 식량 지원 가능성을 검토해주기를 요청했으며, 엘벡도르지 대통령에 대한 감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북 초청의사도 전달하면서 북한이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함.

- **조선신보, 어나니머스 해킹 후 홈페이지 회원제 폐지(4/22, 조선신보)**
 -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Anonymous)에 의해 홈페이지를 해킹당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2일 당분간 홈페이지를 회원등록제로 운영하지 않기로 함.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선신보는 이날 “전자판 조선신보는 당분간 신규회원 등록접수를 중단하고 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하지 않는 공개방식으로 운영한다”라며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힘.

- **北총리, 中에 지진피해 위로전문(4/2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박봉주 내각 총리는 22일 중국 쓰촨(四川)성에서 발생한 지진피해와 관련해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에게 위로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전함.
 - 박 총리는 전문에서 중국 정부와 국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로의 뜻을 표시하고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영도 밑에(아래) 피해지역 인민들이 이번 자연재해의 후과(결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 **러시아 사할린주 대표단, 이달 북한 방문(4/23, 자유아시아방송(RFA))**
 - 러시아 사할린 주(州) 대표단이 이르면 이달 중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함.
 - RFA는 러시아의 인터넷 매체인 ‘보스토크 미디어’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무역 및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함.
 - 보스토크 미디어는 북러 양국이 농업, 건설, 임업, 어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사할린주 지역 기업이 포함된 대표단이 방북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 확대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北, 미국 인권보고서 비난…“정권 붕괴 노린 음모”(4/23, 조선중앙방송)**
 - 북한 외무성은 23일 미국이 최근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문제삼은 데 대해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음모”라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함.
 -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반미 자주적인 나라들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침략과 간섭의 도구라는 데 미국의 인권보고서의 반동성과 위험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힘.

- **北 “日 야스쿠니 참배는 재침 노리는 망동” 비난(4/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를 비롯한 일부 일본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강하게 비난함.
 - 통신은 이날 ‘진자(진사)에서 뺏어나가는 군국주의 독뿌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조선과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도발행위”라고 규정함.
 - 또한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통한 파시즘 문화의 적극적인 부식(뿌리를 박아 심는 것)은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 또다시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며 일본이 과거 범죄를 찬양하고 군국주의를 고취하고 있다고 맹비난함.

나. 6자회담(북핵)

- **北, 국제제재 ‘동병상련’ 이란과 돈독한 관계 과시(4/22, 노동신문)**
 - 22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란 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정책을 비판함.
 - 신문은 이날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마찰’이라는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이란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와 안보적 압박 사례를 소개한 뒤 “제반 사실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란 핵문제의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연일 “비핵화회담 안돼”…평화회담 의도(4/23, 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이 미국의 비핵화 회담 요구에 연일 부정적 입장을 쏟아내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북한은 지난 18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 철회 ▲군사훈련 중단 등을 한국과 미국의 대화 요구 조건으로 내세운 뒤 각종 매체를 동원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대화 의제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임.

- **北 총참모장 “핵무기와 운반수단 더 많이 만들어야”(4/24, 연합뉴스)**
 - 북한의 현영철 인민군 총참모장은 24일 “정밀화, 소형화된 핵무기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비롯한 우리식의 위력한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현 총참모장은 이날 북한 인민군 창건(4월25일) 81주년을 하루 앞두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의 보고에서 “국방공업부문에서 우리 당의 군사전략사상,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조평통, 독수리연습 비난…“도발 중지해야”(4/24,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이달 말까지 계속될 한미 ‘독수리연습’을 비난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함.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최절정에 이르고 있다”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군사훈련축소’요, ‘수위조절’이요, ‘대화’요 하며 너스레를 떨던 미국과 괴뢰패당이 더욱 광란적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과 침략적 속심(속내)이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더 위협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또한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자멸을 원치 않거든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견어치우고 우리에게 대한 모든 적대행위와 도발책동을 중지해야 한다”며 남한과 미국에 “대화냐 대결이냐, 평화냐 전쟁이냐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개성공단 폐쇄 위기는 남측 책임” 거듭 주장(4/22,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절대로 통할 수 없는 책임회피 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 어떤 궤변과 모략 소동으로도 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은 범죄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한 괴뢰들의 책동은 현 정권 하에서 더욱 노골화됐다”며 “괴뢰들은 고의적인 긴장격화 책동으로 개성공업지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평화적 분위기를 여지없이 파괴했다”고 비난함.

- **北, 개성공단 회담 수용 시한 넘겨 무반응(4/26, 연합뉴스)**
 - 북한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의 수용시한으로 정한 26일 오전을 넘겼지만 회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정부 당국자는 26일 낮 “정오가 지난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답변은 없다”고 확인했으며 북한 매체도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음.

- **北, 회담 거부…“우리가 먼저 중대조치 취할 수도”(종합)(4/2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국방위원회는 26일 정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우리를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성명”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 괴뢰패당이 계속 사태의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밝힘.
 - 방송들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북남관계를 전쟁국면에 몰아 넣은 주범들이 기만적인 당국간 회담설이나 내돌리며 우리에게 최후통첩식 중대조치라는 것을 운운해 댄다면 그것은 최후 파멸만 촉진케 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함.

- **北 “전쟁책동 계속되면 대화 없어”(4/26, 평양방송)**
 -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26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전쟁 책동이 계속되는 한 조미대화든 북남대화든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정부,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 결정(종합2보)(4/26, 연합뉴스)**
 - 정부는 26일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를 북한이 거부하고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측 체류인원 전원의 철수를 결정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는 ▲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거부 ▲ 개성공단 통행 차단 및 북측 근로자 일방 철수 등 북한의 공단운영 중단조치 지속 ▲ 우리 기업의 방북 불허 등을 이번 결정의 이유로 설명함.

- **개성공단 오늘 126명 귀환...50명 29일 철수(4/27,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 머물던 우리 측 체류인원 115명이 27일 오후 4시20분께부터 차량 59대에 나눠 타고 귀환하기 시작했고 115명 중에는 중국인 1명도 포함돼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개성공단 폐쇄되면 南 책임...비싼 대가 치를 것”(종합)(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7일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폐쇄의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힘.
 -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실무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개성공업지구 운명은 지금 경각에 이르렀다”며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히 폐쇄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전함.

- **北 “김관진 장관 ‘괴소포 사건’은 민심의 조롱” 주장(4/28, 노동신문)**
 - 북한은 28일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위협 문자가 담긴 ‘괴소포’가 배달된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제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드는 부나비처럼 분별없이 날치는 역도에 대한 민심의 조롱, 항거의 표시”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주장함.
 - 신문은 이날 ‘호전광이 받은 경고장’이라는 단평에서 “지금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찍하면 호전적 망발을 내뱉으며 전쟁의 불집을 터치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호전광 김관진을 한목소리로 단죄규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기타 (대남)

- 개성공업지구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유감 표명 관련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광대곡’이라고 왜곡하며 재차 ‘중대초치 선포의 정당성’과 사태 責任轉嫁(4.24, 평방/개성공업지구 사태의 주범은 누구인가)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4.29-4.30

4 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박봉주 총리, 평남 주요 탄광 점검(4/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최대 석탄생산지 중 하나인 평안남도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을 찾아 생산 실태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박 총리는 2·8직동청년탄광의 채굴 조건과 생산 실태를 점검한 뒤 연합기업소 산하 탄광들의 석탄매장량과 채굴량 등을 파악했으며, 현지에서 협의회를 개최해 석탄부문의 경영전략과 기업관리, 노동력 관리 문제를 논의함.

- **北 김정은, 국제경기 금메달리스트 격려(4/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9일 국제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와 감독, 체육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13년 세계청소년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리수연(여자 44kg급 3관왕), 권용광(남자 62kg급 3관왕), 박정주(남자 50kg급 용상 1위) 선수, 지난 2월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마라톤대회 여자 부분 금메달리스트 김금옥 선수와 김일승 감독을 만남.

- **北, 7년 만에 소년단대회 소집...청소년 충성 다지기(4/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006년 이후 7년 만에 소년단대회를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전함.
 - 통신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6월 초에 조선소년단 제 7차 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라며 “이번 대회에서는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기 위한 조선소년단의 과업을 토의하게 된다”고 밝힘.

■ 김정은동향

- 4/30, 김정은 黨 제1비서, 4.29 리설주와 함께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1급 남자축구 결승전(김일성 경기장, 리명수팀↔압록강팀) 관람(4.30,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장성택·현영철·김기남·최태복·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주규창·최부일·김동일 등 관람
 - 김정은, 4.29 최근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김금옥·양경일·리세광·황룡학·박영미·홍국현·리수연·권용광·박정주)과 김일성 감독 및 체육지도 일꾼들 접견(4.30, 중통·중방·평방)
 - 박봉주·최룡해·장성택·현영철·김격식·김기남·최태복·김양건·김영일·김평해·곽범기·문경덕·최부일 등 참가
- 4/30,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양각도축구경기장(축구 전용구장으로 개건 지시) 시찰(4.30, 중통·중방·평방)
 - 최룡해·장성택·현영철·리영길 등 동행
- 4/30, 김정은 黨 제1비서, 김희숙(우시군 상업관리 소장)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4.30,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 총리),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2.8직동청년탄광 등) 석탄생산실태 현지 요화와 순천화력연합기업소 방문 및 ‘문제점’ 협의(4.29,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자급자족 위해 새 땅 찾자”…농경지 확대 독려(4/29, 노동신문)

-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29일 파종기를 맞아 농업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농경지 확대를 독려함.
- 신문은 1면에 실린 ‘새땅을 적극 찾아 곡식을 심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현 시기 세계적인 식량 사정이 보다 긴장해진 조건에서 식량을 자급자족하자면 한평의 새땅이라도 더 많이 찾아 곡식을 심고 가꿔 나라 쌀독을 가득 채워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모든 농촌들에서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을 모조리 찾아 개간하여 강냉이를 비롯한 곡식을 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며 “논밭 가운데 있는 건물들을 산기슭에 옮기고 봄갈이를 다그쳐야 하며 필요없는 도로, 물길, 양수장을 정리하여 포전으로 만들어 곡식을 심어야 한다”고 독려함.

다. 사회·문화

- 北, 작년 국제특허 2건 출원(4/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해 2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인용해 30일 보도함.
 - 북한은 작년 3월 ‘공개자료를 이용한 개인교습체계’의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9월에는 ‘동물의 뼈를 이용한 유산균 우유 제조법’의 특허를 출원함.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인사 “미국이 원수님 우습게 봐 대화제의 거부”(4/29, 연합뉴스; 민족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인 조국통일연구원의 림용철 부원장이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친북성향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을 통해 북한의 대화제의 거부에 대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림 부원장은 28일 민족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 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배경을 묻자 “우리 원수님의 결심은 단호하셨다”며 “우리 원수님(김정은)은...미국이나 적대세력이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도 한층 더 단호한 결심을 가속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 대답함.

나. 6자회담(북핵)

- “북한, 미사일 발사 신호 중단”(4/29, 아사히신문)
 - 북한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 발사 준비 작업을 일단 중단했고 미군도 감시 태세를 한 단계 완화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9일 ‘한·미·일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의 궤도 등을 지상 기지에 전하기 위해 발신하는 원격정보(telemetry)와 지상 기지의 통신 관제 레이더 전파 등이 지난 20일째부터 한·미·일 측에서 수신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전파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시험적으로 발생하는 것임.

● 北 “美, 한반도 핵위기 근원청산 용단 내려야”(4/30,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한반도 핵위기를 근원적으로 청산할 미국의 용단을 촉구함.
- 신문은 ‘조선반도 핵위기 사태의 진상을 논함’이란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의 현존 핵위기를 조성한 장본인으로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힘.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탄광지역에 생존 국군포로 113명 명단 확보(4/29, 연합뉴스)

-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국내 송환운동을 벌이는 단체인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 전 의원)는 29일 중국과 가까이 있는 북한의 탄광지역에 국군포로 113명이 생존해 있다면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전함.
- 이 단체는 이날 낸 자료에서 지난 2월 현재 함경북도 셋별군에 있는 고건원 노동자구에 58명, 하면 노동자구에 32명, 룡북 노동자구에 9명, 함북 온성군에 2명, 자강도 교화소(교도소)에 1명, 행방불명 11명 등 국군포로 생존자 113명의 이름과 거주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10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했지만 조사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함.

나. 경제 · 사회 · 문화

- 北 “南 사태악화 추구하면 개성공단에 결정적 조치”(4/29, 노동신문)
 - 북한은 29일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철수조치를 ‘파렴치한 망동’으로 비난하면서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경고한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9일 전함.
 - 신문은 이날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추태’ 제목의 글에서 “그런 파렴치한 망동으로는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 위기에 빠트린 저들의 범죄적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 또한 “지금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런 엄혹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명줄을 걸고 있는 남측 기업의 처지를 고려해 남측 인원들에 대한 강제추방과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폐쇄와 같은 중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北 “南이 개성공단 깨면 민족이 용서치 않을 것”(4/30, 민주조선)
 -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30일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완전히 깨면 민족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민주조선은 이날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인원을 철수하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며 “괴뢰들이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히 깨다면 민족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힘.

3·4월

북한동향 일지

〈3월 일지〉

| 보도일자 | 내용 |
|----------------|---|
| 3/1, 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2.28 리설주와 함께 北-美 농구팀 선수들의 혼합경기(류경정주영체육관) 관람 및 美 NBA 前 선수 ‘데니스 로드먼’ 등 일행과 담화 |
| 3/7,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황해남도 은천군·안악군 봄철영농준비실태 현지요해 |
| 3/8,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3.7 이른 새벽 서남전선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재시찰 |
| 3/9,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춘거리 체육촌 시찰 및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체육단의 활쏘기경기 관람 |
| 3/10, 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선전 선동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선동원들(김덕고, 흥남비료 연합기업소 노동자 등)에게 ‘감사’ 전달 |
| 3/11,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청춘거리 체육촌과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현지요해 |
| 3/12, 중통 | 김정은 黨 제1비서, 3.11 백령도 인근 월내도방어대 시찰 |
| 3/12, 중통 | 김정은 黨 제1비서, 3.11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 포병구분대 시찰 |
| 3/12,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
| 3/14, 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연평도·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 지도 |
| 3/14,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중국 시진핑(習近平)에게 ‘국가 주석·중앙군사총 주석 피선(奎人代 제12기 제1차 회의)’ 축전 |
| 3/14, 중통·중방 | 최영림·김기남 등 黨·국가 책임일꾼들, 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 숙소 축하 방문 |
| 3/15,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세포등판개건전투장(강원도 세포·평강·이천군 일대)·문천시 남창협동농장·안변군 비산협동농장·문평제련소 등 현지요해 |
| 3/19, 중통·중방·평방 | 전국경공업대회, 3.18 평양에서 진행 및 김정은 黨 제1비서 연설 |
| 3/19, 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국 경공업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
| 3/20,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초정밀 무인타격기의 대상물 타격과 敵 순항미사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켓(지대공미사일) 사격훈련 지도 |
| 3/21, 중통·중방 | 최영림 내각 총리, 黃北 수안군 임농북함경영방법도입 정형(산림토지에서 나무와 농작물, 약초 등을 결합 재배) 현지 요해 |
| 3/21, 중통·중방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 김형준 부상), 아프리카 국가들 방문차 평양 출발 |
| 3/23, 중통 | 김정은 黨 제1비서, 3.22 제1973군부대 지휘부 시찰 |
| 3/23, 중통 | 김영남·최영림 등 黨·政 책임일꾼들, 3.20, 22일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장 참관 |
| 3/24, 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3.23 제1973군부대 관하 2대대 시찰 |
| 3/25, 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3.24 인민군대 여러 부문사업 지도 |
| 3/25, 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성애(인민보안부 산하단위 부원) 등 ‘좋은 일을 한’ 근로자 |

| | |
|----------------|--|
| | -노동자들에게 '감사' 전달 |
| 3/26, 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3.25 전선동부와 동해안에 위치한 '육군 대연합부대들' 및 '해군 연합부대'의 상륙 및 반상륙작전능력 최종검열 |
| 3/27, 중통·중방 | 최영림 내각 총리, 장재도·무도영웅방어대 방문 요해 |
| 3/28, 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전군선전일꾼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
| 3/29, 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0시30분 전략로케트軍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 긴급소집 및 화력타격계획 최종 검토·비준 |
| 3/29,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平北 양책베아링공장·룡천군 장산협동농장 등 현지요해 |
| 3/31, 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무연탄 가스화공사 완공에 기여한 차광혁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
| 3/31,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당중앙위 정치국 및 중앙군사위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4월 일지〉

| 보도일자 | 내용 |
|----------------|---|
| 4/1, 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건설 지원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 |
| 4/4, 중통 | 김정은 黨 제1비서(4.11),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4.13) 1돌 즈음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 4.4 양형섭·김용진(내각부총리) 등 참가下 평양대극장에서 진행 |
| 4/7, 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금수산태양궁전을 꾸리는데 기여한 '류경능리식당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 |
| 4/12, 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4.11 조선인민군 제630대연합부대에 모란봉악단 파견 및 화선공연 조치와 '선물' 전달 |
| 4/13, 중통·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총련」에 1억 9,830만₩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전달 |
| 4/15, 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0시 '태양절(김일성 생일)'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 4/16, 중통·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4.15 평양시민들과 함께 '태양절경축' 은하수음악회 관람 |
| 4/16, 중통·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4.15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 관람 |
| 4/16, 중통 | 최룡해(총정치국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및 인민군열사묘건설정형 현지 요해 |
| 4/18, 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발휘한" 일꾼 박혜옥·평양 능라1유치원 교양원) 등에게 '감사' 전달 |
| 4/23, 중통 | 박봉주(내각 총리), 黃南道內(해주시 비료공장·남새온실 및 청단군 청정협동농장과 강령군 부민협동농장) 농사실태 현지 요해 |
| 4/26, 중통·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4.25 '인민군창건 81돌'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
| 4/28, 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개업을 앞둔 '해당화관' 시찰 |
| 4/29, 중통·평방 | 박봉주(내각 총리),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2.8직동청년탄광 등) 석탄생산실태 현지 요해와 순천화력연합기업소 방문 및 '문제점' 협의 |
| 4/30, 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4.29 리설주와 함께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1급 남자축구 결승전(김일성경기장, 리명수팀↔압록강팀) 관람 |
| 4/30, 중통·중방·평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양각도축구경기장(축구 전용구장으로 개건 지시) 시찰 |
| 4/30, 중방 | 김정은 黨 제1비서, 김희숙(우시군 상업관리 소장) 등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